

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2
축사(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김영배·기동민)	4
특집 1 성북구와 코로나 19	
아카이브로 본 성북구의 코로나 19	9
코로나19와 성북구의 문화예술 - 성북문화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15
문화예술인 초대석	
예술은 바른 마음에서 시작한다 - 국내 발탈의 일인자 조영숙	18
무중력지대성북(이혜미 센터장) 1명	26
특집2 금도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	
추억의 성북구 피서지	34
삼선초등학교	36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39
성북공간	
최만린 미술관	42
2020년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6·25 전쟁의 기록자, 김성철	48
이쾌대와 성북회화 연구소	56
2020년 성북문화원 소식	
비하인드 심우	66
주민기록단	71
2020 외부 경연대회 수상 내역	76
2020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78
2020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85
2020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90
2020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92

『성북문화』 8호를 내며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성북문화원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문화강좌는 중지됐고, 준비했던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북문화』 8호는 바로 그 노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성북문화원이 노력을 기울인 것은 온라인 콘텐츠였습니다. 프리미엄 인문학 ‘인문학 다방’, 인문학특강, 10분 성북학, 주민아카데미, 전통강좌 영상 등은 모두 그 산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만 해도 그 수가 30여 편에 이르며, 성북문화원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아카이브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북구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가 담긴 이 홈페이지는 시대별, 지역별, 유형별로 자료를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제로 보는 성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북구의 코로나19’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어 ‘성북마을발견+문학’과 ‘성북마을발견+독립운동’ 페이지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만든 ‘성북마을발견+문학’에서는 문학작품의 소재가 된 성북구의 장소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연표를 기반으로 만든 ‘성북마을발견+독립운동’을 통해서는 성북구와 인연이 있는 100여 명의 독립지사들과, 성북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 역사를 아는 것에도, 마을교육 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성북문화원의 문화강좌가 축소 운영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훌륭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성북문화원 문화강좌는 그간 성북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전승하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리기와 서예 강좌 등 일부 강좌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아주 멈추기도 했습니다. 구민들과 문화원의 중요한 접점이기도 했던 문화강좌의 운영의 축소는 못내 아쉬운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많은 축제도 취소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되어 빠른 기간 동안



성북구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성북동문화재야행’은 코로나19에 맞춰 준비하였습니다. AR 해설, 온라인 중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둔 공간 구성 등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8월 중순 이후 성북구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캠퍼스타운 추진단과 2018년부터 함께 주관한 ‘캠퍼스타운축제 끌어안암’, 뮤지컬 심우는 온라인 중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성북구의 대표 독립지사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다례제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되었고, 성북문화원에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의 숨은 영웅’을 주제로, 어려운 와중에도 성북구민들을 위해 애써주는 분들의 노력을 기렸습니다. ‘조지훈 탄생 100주년’ 역시 ‘성북천 깃발전’에서 기념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2020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나열해 보니, 2021년의 목표가 생깁니다. 성북구민 여러분들에게 문화로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2021년은 문화강좌, 문화행사, 성북학연구, 마을아카이브 사업 등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의 삶에 더 와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분들이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잠시나마 미소 짓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사랑에 성북문화원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2020년입니다. 그래도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힘든 중에도 성북문화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모두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북악산 중턱에서 바라본 성북구

언제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연구와 조사,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성북문화원의 『성북문화』 8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성북문화원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청과 함께 하는 마을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성북구의 코로나19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리하였고, 성북구의 독립운동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만든 각종 영상 콘텐츠들 역시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북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문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모여서 함께 웃고, 울고 즐거움을 나누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올해 그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이 이 어려운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 성북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북구민들의 마음에 문화로 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흰 소의 해인 신축년에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처럼 튼튼뚱뚱 앞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힘써주신 조태권 성북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김일영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버텼지만 또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도 선별진료소 앞을 가득 메운 행렬, 마스크로 코와 입을 단단히 가리고 걷는 분들, 밤 9시 이후 조용한 변화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성북구민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읽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0년 성북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구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만שי지탄은 있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공포됩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지금 성북문화원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입니다.

성북문화원에 거는 성북구민들의 희망이 큼니다. 그런 만큼 성북구의회는 성북문화원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원활하게 지역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문화』 8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잡지를 읽고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새해 모두 강건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김일영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어느덧 여덟 번째 『성북문화』가 나온다는 소식에 정성어
린 연하장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역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오신 성북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년, 성북문화원이 『성북문화』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성북의 토대를 쌓아온 시간입니다. 성북동 심우장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는 책,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채널을 타고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 주택가마다 켜켜이
간직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의 사연과 이야기는 성북마을아카이브로 수집, 정리되어 공동의 기
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북마을이 간직하게 된 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들을 기반으로 성북구는 창조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랬듯 그 길에 성북문화원이 언제나 든든하게 동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성북문화원은 지역문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방법을 끊임없이 질문했고, 지역의 기관, 단
체, 문화예술인들과 협력하면서 창의적인 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북의 문화적
역량은 더욱 깊어졌고, 구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희망’이 있습니다. 힘겨웠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또한 뚜렷하게 보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역사문화도시 성북
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웃으며 함께 갑시다.

밝아오는 신축년, 성북문화원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다시 손
뽁 잡고 인사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갑) 국회의원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성북구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북문화원의 『성북문화』 8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비대면 학교 수업과 재택근무가 이제는 삶의 한 형태로 자리하였습니다. 문화생활도 변화를 거듭하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유명 가수의 온라인 콘서트부터 비대면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이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팬데믹 사회가 끝나더라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공연 현장에서 듣고 보는 감동, 배우고 익히며 느끼는 기쁨을 기억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성북문화원의 풍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리라 생각합니다. 25년이 넘는 세월을 성북과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주민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북 고유의 문화도 오롯이 지키고 또 전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북문화』 8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성북문화』와 성북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축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북구(을) 국회의원 기동민

CORONAVIRUS

성북구와
코로나 19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빨리 흐른듯하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그 중에서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바로 ‘코로나19’일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면 성북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성북구민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성북마을아카이브 기록물을 통해 변화된 성북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자.

당연히 세상의 모습은 많이 변했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아카이브 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겪은 성북구와 성북구민의 모습도 당연히 남겨야 했기에 우리는 기록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수집한 기록물들을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사진으로 본 성북의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당시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주민들(2020.03.12.)

아카이브팀에서 가장 먼저 촬영한 사진은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성북구민들의 모습이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품귀 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정부는 3월 초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추어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품절이 되면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다가오면 약국 앞에는 줄이 늘어섰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이다. 이 기록을 시작으로 마을아카이브팀을 비롯한 성북문화원 직원들은 오며 가며 성북구 곳곳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길거리 곳곳과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과 관련된 현수막과 안내문이 부착된 것이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 시설부터 전통

시장, 음식점, 카페, 문화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여러 사람이 오가고 이용하는 장소라면 어김없이 포스터와 안내문이 부착되었고 손소독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전통시장은 한산해졌고 음식점과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자리를 비워두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기 시작했다.



길음역 내 코로나19 관련 포스터



장위전통시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송덕초등학교 앞 현수막



송려초등학교 앞 현수막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겨울방학이 한창이던 1월부터 확산이 시작되었기에 새학기가 시작 되는 3월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교실과 강의실이 아닌 모니터를 통해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다. 대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등교 개학은 5월이 되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할 새도 없이 봄은 빠르게 지나갔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교문 앞에 하나둘씩 걸렸다. 아카이브팀은 차를 타고 성북구 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다. ‘여러분의 웃음소리와 밝은 미소가 그리웠어요,’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내요,’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학교는 지금부터 봄.’ 등의 말들이 새겨져 있는 현수막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다렸을 선생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성북구는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여러 관계자와 구민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작업에 매진하였다. 이들은 노래방, PC방, 공원, 문화재, 주택가 등 성북구 곳곳을 누비며 한 여름에도 두꺼운 마스크와 방호복을 갖추고 구슬땀을 흘렸다. 성북구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선동 거리 방역소독



정릉 방역소독



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역소독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는 성북의 사람들

변화된 성북구의 모습은 사진 수집을 통해 기록할 수 있었지만, 성북구민 그리고 성북구 내에 터를 잡고 일을 하는 이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성북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에 인터뷰를 기획하게 되었다. 인터뷰 영상은 ‘교육’, ‘경제’, ‘문화예술’로 주제를 나누어 제작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섭외에 돌입하였다. 섭외는 역시 쉽지 않았다. 가장 먼저 성북구 내 전통시장들을 찾았지만 코로나19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분들은 선뜻 인터뷰에 응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자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성북의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첫 번째 주제인 ‘교육’ 편에는 성북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대학생, 대학 강사 그리고 학부모의 이야기를 담았다. 초등학생 친구는 새학기임에도 주 1회 등교로 인해 친구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자녀를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학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대학생과 강사님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유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 것이다. ‘경제’편에서는 성북구 내 전통시장 상인 두 분과 카페와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두 분을 만나 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과 가장 어려운 점, 방역을 위해 하는 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영상은 ‘문화예술’편이다. 문화예술계의 활동 역시 쏠쏠 얼어붙게 되었는데, 성북구 내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극단 대표님과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학예연구사 한 분을 만나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약 10회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



길음시장 상인 인터뷰



선잠박물관 학예연구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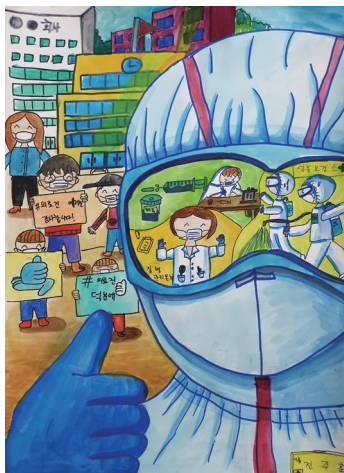


인터뷰 영상 인트로

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상 속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은 같았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지금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답답했던 마스크에 익숙해진 것처럼, 모두 변화에 적응하며 일상을 마주하고 있다. 인터뷰의 공통질문이었던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하고싶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수영장 가기’,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수업하기’, ‘마스크를 벗고 손님들과 대화하기’ 등이 있었다. 하루빨리 이들이 원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코로나19

성북문화원에서는 매년 ‘성북천 깃발전’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상상화)과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한글서예·캘리그래피)으로 진행되는 미술작품 공모전으로, 공모받은 작품들은 깃발로 제작되어 성북천 일대에 일정 기간 전시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상상전의 주제는 ‘성북구의 숨은 영웅’이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19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 보내주었다. 방호복을 입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의 모습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한 색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린이들의



‘제11회 성북천 깃발전 - 팔랑거리는 상상전’을 통해 공모받은 코로나19 관련 그림들

눈에 비친 의료진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벤저스나 슈퍼맨과 같았으며,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영웅이라 하였다. 역시 아이들의 눈은 정확한 것 같다. 의료진들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도 모두 영웅이나 다름없다.

기사와 그래프로 보는 성북의 코로나19

성북마을아카이브에는 사진과 그림, 영상 기록물 외에 일반기록물도 등록되어 있다. 코로나 관련 기사들과 성북구 홍보자료인 <성북구 정책매거진> 중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호를 모아 각각의 링크를 등록해두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는 손길부터 방역에 대한 소식까지, 여러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성북의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북구 정책매거진>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분석한 자료들과 지원 정책, 주민들의 활동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성북구, 전통시장 7곳 신종코로나 대응 방역소독 실시

내용: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 내의 전통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내용의 신종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실시 계획 관련 기사, 발행일: 2020.02.13, 1808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구, 전통시장 7곳 신종코로나 대응 방역소독 완료

내용: 주민들의 마음놓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7개 시장의 방역소독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신종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완료 관련 기사, 발행일: 2020.02.12, 1308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구, 성북천 일대 특별방역으로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내용: 성북구와 관동 고교(하이테크)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성북천 일대 특별방역으로 관련 도별 및 구 방역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신종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관련 기사, 발행일: 2020.02.06, 0952

성북마을아카이브

소확행 이웃에 베풀라... 성북 '마스크 나눔' 돕

내용: 성북구 한 주민이 세련된 주민센터에서 이웃에게 전달할 마스크 500개를 기부했다는 내용의 신종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관련 기사, 발행일: 2020.02.05, 1856

성북마을아카이브

표 1 확진자 현황(전국, 서울시, 성북구) [2020. 11. 02. 0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격리 치료 중	격리 해제	사망	계
전국	1,869	24,395	468	26,732
서울시	503	5,500	78	6,081
성북구	13	331	8	352

그래프 1 확진자 현황(전국, 서울시, 성북구) [2020. 11. 02. 00시 기준]

■ 격리 치료 중 ■ 격리 해제 ■ 사망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등록되어 있는 코로나19 관련 기사 목록

성북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표와 그래프
(출처: 성북구 정책매거진 vol.7)

코로나19의 확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함께 모여 카페를 가고, 공연장과 야구장에 가서 큰소리로 응원도 하고, 날이 좋을 때면 여행을 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로에게 더 각박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함께' 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기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북문화원은 계속해서 기록물을 모을 것이다. 지금의 기록이 기억자산이 되어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성북구를 남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추운 날씨 속에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서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할 때이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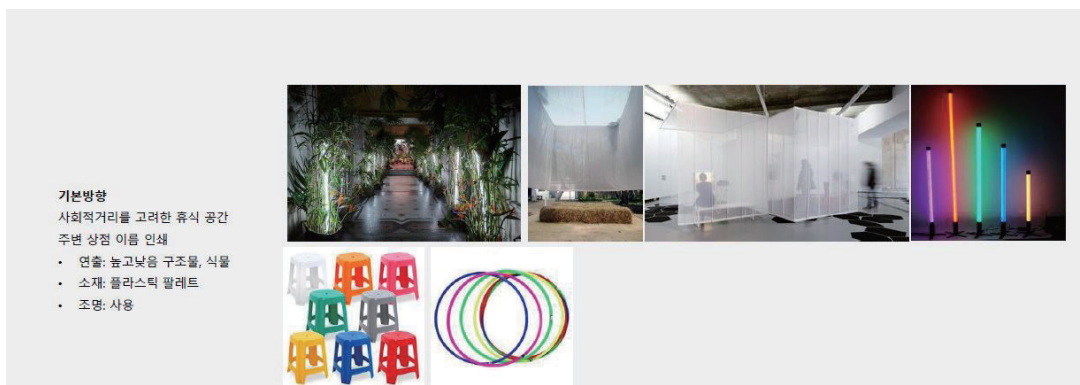
코로나 19와 성북구의 문화예술

글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2020년의 키워드는 단연 코로나19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생활방역'은 습관이 되었다. 해외여행은 물론 친구 혹은 지인들과의 모임도 조심스러워졌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의 행동은 위축되었고 자연히 식당, 카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돌아보면 즐거운 날도 있었어.'라고 회상하기에 202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겨운 한해였다. 이렇게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문화·예술계였다.

문화와 예술에서 체험은 중요하다. 전시를 보는 행위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술관에 가는 것, 가서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 작품의 실물을 보고 감상하는 것 그리고 관람 후에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체험이다. 공연을 보는 것, 축제에 가는 것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직접 공연과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곳의 분위기를 체험한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일부는 사람이 모임으로써 형성되는데, 올해는 그것이 '금지' 됐다.

많은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었다. 성북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대표 행사인 '성북동문화재야행'은 취소된 축제 가운데 하나였다. AR공연 및 해설, VR공연, 거리두기 공연장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8월 성북구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부터 진행한 뮤지컬 '심우'는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없어, 무관객으로 진행하며 영



〈성북동문화재야행〉 거리두기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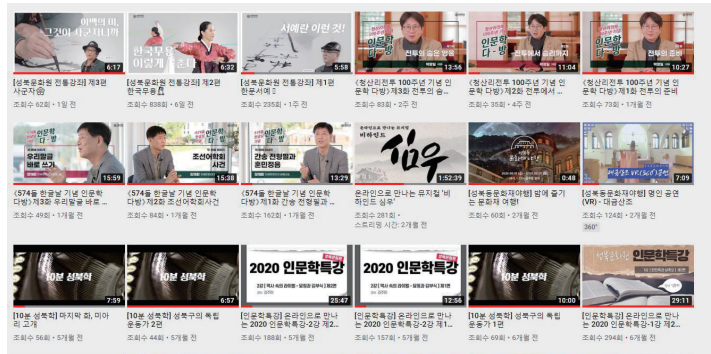
‘비하인드 심우’ 온라인 생중계 중

상으로 녹화를 하여 공개했다.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뮤지컬 ‘심우’의 뒷이야기를 연출, 배우, 음악 및 무용 감독 등 극단 단원들과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관계자 그리고 ‘뮤지컬 심우’의 팬을 모아 ‘비하인드 심우’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북문화원이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던 캠퍼스타운 축제 ‘끌어안암’은 우여곡절 끝에 그간의 성과를 영상으로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제7회 성북페스티벌 포스터

성북문화원의 행사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성북문화재단이 주관하여 매년 5월 진행되던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코로나 극복 응원 프로젝트로 성격을 조금 바꾸어 11월에 여러 곳에서 나누어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성북구 주민들이 좋아하던 ‘성북문화바캉스’ 역시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성북연극협회에서 진행하던 성북페스티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성북구는 특히 연극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많은 연극 공연이 취소되었으며, 공연장 및 연습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극단 대표는 “연극인들은 원래 힘들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라고



2020년 제작된 성북문화원의 온라인 콘텐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빈 공간을 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대신했다. 공연 영상이 만들어지고, 중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체험’이라는 자리를 온라인 콘텐츠가 채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비대면 콘텐츠를 갑자기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만남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에서의 체험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수만 년 동안 서로 만나면서 형성되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단순히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다. 얼굴표정, 몸짓 등 상대방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 대화한다.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며 반응을 유추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만 년 동안의 오프라인적인 행위에 익숙한 인류에게 온라인 콘텐츠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문화는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대에 요구에 따라, 기술에 발전에 따라 바뀐다. 코로나19로 문화도 바뀌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도 생겨날 것이다. 성북구가 이 모든 것을 선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이 위축되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기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예술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의 지원, 민간의 창의성이 절묘하게 결합하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한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사로 글을 마무리 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조영숙 명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된 발탈 예능보유자이다.

판소리 명인인 조몽실의 딸로 태어났으며, 6·25 당시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 그곳에서 임춘앵 국극단과 인연을 맺고 활동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에는 당시 발탈 예능보유자였던 이동안 선생(1906~1995)을 만나 발탈을 배웠으며 2012년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현재 동선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릉에 전수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영숙 명인은 성북동문화재야행 등 성북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여전히 직접 공연을 하며 훌륭한 춤과 소리를 전해주는 현역이다.



문화예술인 초대석 1

“예술은 바른 마음에서 시작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

조영숙

인터뷰 진행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인터뷰 정리 : 김남주, 천혜정(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34년 음력 3월 3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조영숙이라고 합니다.

Q. 아버지가 조몽실 명창이신데, 관련된 기억이 있나요?

A.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광대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1년 뒤인 1935년부터 창극 붐이 일어나 창극을 하시느라고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만은 절대 광대 딸로 안 키우겠다.'라고 마음먹고 저를 함경남도 원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광대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광대 딸이라고 하면 정식 결혼도 못하고 기생이 되거나 남의 집 후처(後妻)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어머니는 제가 광대와 관련된 것은 알지도 못하게 키우셨어요. 커서 선생님이 되라고 만 6살도 안된 저를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억나는 것이 몇 장면 있어요. 5살 때 아버지 따라서 원산의 갈마라는 곳 어디론가 바닷가로 낚시를 갔는데 그 때 처음 아버지 등에 한 번 업혀봤어요. 그때가 기억나요. 그때는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왔다갔다 몇 십리가 되니 아버지에게 "다리 아파." 그러니까 처음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업혀라" 딱 그러면서 낚싯대를 내 궁둥이에 받쳐주던 기억이 나요.



자택에서 인터뷰 진행 중인 조영숙 명인

두 번째는 제가 3학년 때인데 아버지는 창극이 잘 되면서 한참 연극하러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하루는 오셔서 외투 하나를 사주셨는데, 그것이 백화점에서 사온 당시 일본 애들이나 입을만한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시곤 집에서 하루도 주무시지도 않고 단원들과 연극 끝나고는 바로 출발하셨는데, 그때 가시면서 천자문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 다음에 아버지가 올 때 천자문을 다 읽으면 예쁜 구두를 사다주마.” 그러시고는 못 만나고 6·25 전쟁이 난 거죠.

Q.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 시절을 겪으셨는데요. 그 시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A. 17살에 6·25가 났거든요? 그 때 원산 살았는데 연고도 없고 기숙사에 들어가 봤자 폭격만 심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고모 딸도 있고 아버지 창극단도 있던 평양을 갔어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중에 인민군 장교 차가 오길래 손을 드니까 세워주데. “어디가네?” 해서 평양 간다고 그랬더니 나를 평양역까지 데려다줬어요. 그 차가 아니었으면 죽을 고생 했겠죠.

평양역에 있다가 12월 7일에 대동강을 건넜어요. 폭격으로 다리가 모두 끊어져 배로 건넜는데,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가서 배타고 중간 섬에 내린 다음 가로질러서 저쪽에 있는 배를 타는 식으로 건너서 돈을 이중으로 내야 했어요. 그때 학섬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땅콩밭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섬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돈 내고, 폭격 오면 땅콩밭에 숨었다가 다시 가서 배타고 저쪽으로 건널 때 또 돈을 주고, 그렇게 넘어와서 황주로 해서 사리원으로 해서 토성으로 해서 옮겨 갔죠. 마지막으로 토성에서 기차를 탔는데 군인 가족들 용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차를 타고 가서 수색에서 내려서 또 수용소에 갔다가, 그 다음해 1월 달에야 어머니를 만났죠.

어머니를 만난 날, 그날 빨치산들이 동네사람들 잡으러 온 통에 어머니와 저도 오해를 받아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전쟁 전에 빨치산 중 한 명의 동생을 구해줬대요. 10살 때 어렸을 때부터 한동네에서 살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람 오빠가 빨치산 아주 우두머리는 아니더라도 중간 쯤 됐었나 봐요. 우리가 운이 좋게도 제일 꼬트머리에 묶여서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 사람이 넘어와서 어머니를 보곤 “서울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하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앞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와서 칼을 쏙 빼는데 달빛에 번쩍해, 우리를 죽이려는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냥 묶은 줄을 끊어줬어요. 그러곤 그 사람이 아무소리 하지 말고 잠잠할 때 움직이지 말고, 날이 밝거든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죠. 그때 잡혀간 사람들, 심지어 애기 업은 거 포대기에 두른 채 그냥 갖다가 물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 악한 일 하면 안돼요.

Q. 여성 국극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A. (빨치산에게 잡혀갔던) 사건이 있고 그 이튿날 바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서 이종사촌 언니한테 저를 잠시 맡겼어요. 그때 언니가 연극 구경을 가져가고해서 <만리장성>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시 사범 전문학교에서 ‘나란히 선 두 집’이라는 연극을 해봐서 연극 경험은 있었는데 우리가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마그네슘이 팽 터지면서 연기가 나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 혼령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천둥 번개 소리도 나는데 그때는 어디서 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큰 철판을 달아놓고 밑에서 이렇게 흔들데요.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몰라요. 그걸 처음 보고나서 저는 그냥 ‘아 참 좋은 거 봤다’ 생각하고 오는데, 언니가 “여자들만 연극하는 곳이 있으니 너 좀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임춘앵씨가 하는 여성 국극단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밥은 먹어야겠고 우리 어머니는 나 어디 취직시킨다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국극단에 들어가보자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한 길을 가게 된 것이죠.

Q. 당시 여성 국극의 위상은 어땠나요?

A. 대단했죠. 이북만 못 봤지 남쪽에서는 제주도, 강원도도 못 갔어요. 갈 시간이 없었어요. 전부서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예요.

Q. 임춘앵 선생님이 장위동에서 임춘앵국악연구소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임춘앵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조카 김진진이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아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A. 조카들이 임춘앵 선생을 서운하게 했어요. 부산 극장에서 <콩쥐팍쥐> 막을 올려야 할 텐데 여자 주연 김진진, 김경수가 밤중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막은 올려야 하고 남자 주연은 임춘앵 선생이 할 때니깐 괜찮은데, 여자 주연은 김진진이 했거든요. 게다가 새로 막을 올리는 신작이었는데 조카가 밤중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때 괴로워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시다 망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위동 집을 팔아가시고 <오셀로>를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래도 김진진씨가 장위동에서 자리 잡고 사니까 거기다가 학원을 내서 있었죠. 여성 국극의 지존이라고 그랬던 양반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국극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Q. 국극 임춘앵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여성국악동인회를 결성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A. 여성국극이 전부 설 무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장순¹ 씨가 창극 여성 국극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타협을 해가지고 일을 해보자고 제안한 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

1 성장순(成昌順, 1934년 1월 10일 ~ 2017년 1월 5일), 199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발탈’ 공연 모습(2019년 성북동문화재야행)

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예요. 오정숙², 성창순, 한농선³, 성희경, 김진진, 또 조봉란 등등. 그리고서는 무용들을 짜서 방송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여성 국극으로 <바보 온달>이, 그때 내가 바보온달 역할을 했는데 영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술 마시고 화투치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여기 와서 저기 일 좀 하라 그래’ 이러는 데 이게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했고, 성창순씨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해산합시다.” 그레가지고 해산해버렸어요.

Q. 그럼 나중에 1965년 풍림각 국악팀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신 건가요?

A. 당시 일도 다 끊어지고 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풍림각 정찬순⁴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한 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왜 요리집에 오라 그러나. 용돈 주러나?’ 하고 가

2 오정숙(吳貞淑, 1935년 6월 21일 ~ 2008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판소리 명창이다. 1967년 무형문화재 김연수 후계자로 지정되었고, 1982년 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 5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춘향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3 한농선(韓弄仙, 1934년 ~ 2002년 4월 9일). 가야금 명인 한성기의 딸로 판소리 명창이었으며 200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4 정찬순(鄭讚順). 풍림각의 주인이었으며, 1989년 관광업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봤죠. 갔더니 그게 아니라 제안을 하신 거예요. ‘토막극, 노래만 하고 너희들보고 술 따르란 말 절대 안 할 테니 팀을 하나 꾸려서 오라’는 것이었죠. 그때는 관광요리집이라고 큰 곳에는 다 국악단체가 있었는데, 좀 한다는 사람은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연극만 한다고 하니까 믿고 가자’ 해서 그 동안 나랑 하던 악사들이랑 다 준비해서 데리고 그렇게 갔어요. 그 당시 김영삼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 등 많은 분들이 다 오셨어요. 김대중 (전)대통령은 5·18 이후에 저희 연극 <옥중막>을 보고 울기도 하셨어요.

Q. 여성 국극과 국악팀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진도로 내려가긴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그때는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냥 다 싫었어요. 여의치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절대 흘러가지 않아서. 거기도 누가 식당을 한번 하자 해서 갔었는데 그게 잘 안 됐지. 몇 년 못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24만원 들고 아들 손잡고 올라왔죠.

“ 발탈은 보통 세계에서는 없는 예술이에요. 발바닥이 얼굴이 되는 거죠. 발에 탈을 씌우고 움직이지 않게 해서 까만 장막을 치고 발탈을 까딱 까딱 하면서 춤도 추고 그래요.

Q. 서울 상경 이후 이동안 선생님을 만나서 발탈을 시작하게 되는데, 만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계림극장에서 공연할 때 웬 남자가 친척이라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이동안⁵ 선생님이야. 자기가 하는 무용학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는 안 갔어요. 그러다 이동안 선생하고 연이 끊어졌었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동안 선생님이 TV에 출연하셔서 저를 지목하면서 ‘이걸 보면 나를 꼭 찾아오라’고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인연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대본을 주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생소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성국극도 꺼져가고 있는데 이제 뭐 할 꺼냐?” 하시면서 손수 가사도 써주고 “배워서 해로울 것 없다고 이제 네가 해라.”라고 말씀 하셨어요. 보고 외워서 해보라고 하셔서 발탈을 보니까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춤도 여러 가지고, 어렸을 때 배운 게 여기 다 들어 있기도 하고 내용이 탄실해서 발탈을 시작한 거예요.

Q. 발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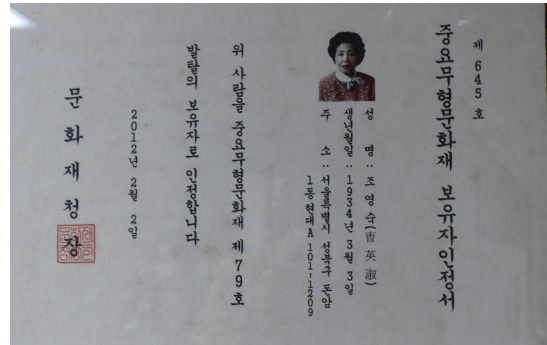
A. 보통 세계에서는 없는 예술이에요. 발바닥이 얼굴이 되는 거죠. 발에 탈을 씌우고 움직이지 않게 해서 까만 장막을 치고 그 앞에는 마네킹 윗도리를 봐요. 몸통만 있으니깐 목 부분에 발만 있으면 사람 모양 되잖아요. 요즘은 옆으로도 뚫어서 꼬챙이를 손으로 움직이고 발탈 까딱까딱하면서

5 이동안(李東安, 1906년~1995년). 해방 전부터 여러 명인에게 전통 예능을 배웠으며, 해방 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춤도 추고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비유해서 재밌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성이 뛰어난 거예요.

Q. 발탈을 처음 보고 배우실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A. 탈은 솔직한 애기로 장막 안이니까 안에서 대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연극을 한 번 해봤고 연습도 다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나리가 말이 어려워요. 이 뭘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외우려니까 머리가 터지게 생겼어요. 그게 조금 힘들었지. 다른 건 뭐 별로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645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Q. 발탈은 즉흥적인 부분도 많은데 쉬지 않고 한다면 총 연행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제일 길게 한 거는 발탈로 할 때는 1시간10분? 전부 다 하면 길어요. 왜 그러냐면 노래만 해도 몇 가지인지 몰라요. 육자배기만 해도 이것이 10분이 넘어요. 그런데다가 소리가 좀 많아요? 장타령, 돈타령...

Q. 무형문화재는 언제 받게 되셨나요?

A. 80년도에 발탈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받았어요. 이동안 선생님한테서 내려온 발탈 보유자가 두 명이 있어요. 내가 발탈은 먼저 했는데, 문화재는 이동안 선생님하고 이 사람이 먼저 받았어요. 나는 이제야 늦게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60년 만에 받았네요.

Q. 선생님 가계(조씨)는 많은 명창과 명인을 배출했는데,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A. 그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다가 갔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사람 뭐 잘하지.’ 이것보다도 모든 것을 바르게 살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다가 바르게 살다 갔다는 그 말을 하는 게 나는 듣고 싶네요.

Q.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를 배우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A. 예술도 한길만 파도 모든 것을 다 같이 곁해서 인성을 첫째 배워야 해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도 지금은 나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랬다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고비를 자기 일을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고 그 길로 쪽 파고들어 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서양 문물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것을 배우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예쁘고 너무 고마워요.



문화예술인 초대석 2

청년을 위한 마당을, 청년을 위한 마을을

무중력지대 성북 이혜미 센터장을 만나다

인터뷰 진행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인터뷰 정리 : 김남주, 천혜정(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무중력지대.

지구에서 없을 것 같은 공간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중력 속에서 산다. 그러니 중력은 삶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중력은 무게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 삶을 가끔은 힘들게 한다. 그래서 가끔은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주인의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사회적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성북구에도 그 무중력지대가 있다. 무중력지대 성북에서는 무엇을 할까? 이혜미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Part1. 자기소개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성북에서 문화기획, 공간운영을 하고 있는 8년차 성북구민 이혜미입니다.

Part 2. 무중력지대에 대하여

Q. 무중력지대란 어떤 곳인가요?

A.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청년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중력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시도하고, 작당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움직임을 보장하는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무중력지대 성북은 언제 개관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가요?

A. 무중력지대 성북은 2018년도 6월에 개관했어요. 현재 3년차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크게



무중력지대 성북 이혜미 센터장과의 인터뷰

는 청년시민 지원, 공유지 확산, 청년시민 조명 이렇게 3가지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을 위한 마당, 청년을 위한 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커뮤니티 학교라고 해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청년들끼리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작은 기술들을 배워갈 수 있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공유지 확산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멤버십들이 이 안에 공유를 통해서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속된 청년들이 이 공간을 자신들의 공유 자산으로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멤버십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 공간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연결하고 연대해서 청년들의 활동지를 늘려나가는 우리동네 무지랑이라는 사업도 오래 해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년시민 조명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Q. 무중력지대 성북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다른 곳도 청년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공간이라 비슷하지만, 성북이 강조하는 것은 청년시민, 주체성,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도 시민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



무중력지대 성북 모임방



무중력지대 성북 무지랑실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원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산이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절차나 증빙서류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최소화해서 프로젝트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공유지 확산 사업에서는 이 공간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체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간 이용문화를 잘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하면 이용자운영위원회인데,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서 시작을 못했다가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지속해가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Q.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년차라면 어려운 일들, 신뢰의 문제 등. 구체적인 힘든, 어려운 점들은?

A. 돌발적인 사건 사고는 늘 생기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했지만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저희에게도 쌓여서 ‘아 역시 이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도 보수적인 태도가 생겨가게 되는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 세대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는 이혜미 센터장

Q. 무중력지대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무중력지대를 통해 무엇을 얻어 가면 좋을까요?

A.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는 뭔가 배제 당하는 경험을 했었다면, 나의 개성이나 다름이 무중력지대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해요. 전면으로 실패할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과는 실패해도 과정에서의 작은 성취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에너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Q. 무중력지대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무중력지대의 예산, 공간들 이곳의 자원들을 마음껏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하고 홍보해서 알려드려야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자원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Part 3 이혜미 센터장님에 대하여

Q. 성북구에서 청년혁신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성북구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계기는 따로 없었고요. 막연히 공동체에 대한 상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을 할 때 쯤 한창 협동조합 붐이 일고 대안적 삶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였어요. 공동체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던 찰나에 성북문화재단에서 활동가를 뽑는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문화공동체팀에 지원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Q. 성북의 공동체란?

A. 범주도 다양하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성북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문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하려고 했을 때 첫 시작의 문턱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느꼈어요. 결속력이 단단해질수록 이 안에서의 문턱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 처음 진입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무중력지대 멤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해요.

Q. 무중력지대 센터장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크게 맡아서 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사업보다는 공간을 보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대외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우리도 청년당사자니까 우리 또래의 청년들도 관심 있어 할 거라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Q.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성북신나 이사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성북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북이 지역 활동이나 정책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활동가들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해야 하나 빠르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분들은 이해도가 떨어지시기거나 아직 접하지 못해서 논의의 단계들이 시작에 머물러 있다면 성북은 거버넌스나 여러 것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이야기 할 때 편한 것 같아요.

Q. 청년 세대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는 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저희가 청년 세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우리도 청



무중력지대 성북 아고식탁

년 당사자니까 우리 또래의 청년들도 관심 있어 할 거라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을 때 재밌기도 하고,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참여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럴 때 뿌듯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학교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페미니즘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청년공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 분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문턱이 있는 거죠. 전면에 청년공간이라는 타이틀이 다른 세대들은 배제하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Q. 청년들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 지?

A. 고민이 많긴 해요. 청년 당사자라고 말하긴 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런 점에 관심이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진행하는 거지 이걸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또 의견 대립이나 젠더갈등 이슈갈등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까 민감한 주제들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기는 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뤘을 때 관심 있는 소수만 모이고 관심이 없거나 대척점이 있으신 분들은 오지 않으니까 사실 대립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논의하고 연대를 경험하시니까 만족도는 높는데 그런 점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Q.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 가는 게 꿈이에요. 지방에서 마을을 만들어서 사는 게 최종 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꿈이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무중력지대에서 일하는 게 저한테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금

끼

금
요일
마다
돌
아
오
는
성
북
의
이
야
기

도

‘금도끼’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를 줄여서 재미있게 만든 말입니다.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에서는 ‘금도끼’라는 제목으로 그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큐레이션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43개의 ‘금도끼’ 글을 성북문화원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연재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억의 성북구 피서지

이 글은 7월 31일 금요일에 게재된 22번째 금도끼 '추억의 성북구 피서지'의 내용이다.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이번 주 내내 서울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오늘은 후텁지근한 공기가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이럴 때면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없어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도끼는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성북구 속 피서지로 랜선 추억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가볼 곳은 '북악스카이웨이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곰의 집'이라는 레스토랑과 함께 운영되었기 때문에 '곰의 집 수영장'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대형풀장과 어린이 풀장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1970-80년대 서울의 주요 수영장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레스토랑과 수영장 모두 폐업한 상태이지만 도심 속에서 서울의 전경을 보며 일광욕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니 꽤나 근사한 피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진1〉곰의 집 수영장 전경(좌)과 북악스카이웨이(곰의 집) 수영장 잔디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우)
〈출처: 성북구청〉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낙산수영장입니다. 낙산수영장은 옛 한성여고 교내에 있던 수영장입니다. 50x25m 규모의 정규 규격 수영장과 어린이용 보조 수영장이 있던 낙산수영장은 방학 중에만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스카이웨이 수영장이 북악스카이웨이 중턱에 있어 교통편이 불편했던 것에 반해 낙산수



〈사진2〉옛 한성여고 교내에 있던 낙산수영장(1982년)
〈출처: 성북구청〉

영장은 접근성이 높아 인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낙산수영장은 1986년 한성대학교가 한성여중, 한성여고 자리로 이전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수영장 부지는 현재 한성대학교 공학관과 상상빌리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정릉계곡입니다. 정릉계곡은 청수동의 계류를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기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북한산이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정릉계곡 주변으로 스타폴장과 정릉폴장이 들어섰습니다. 스타폴장은 영화배우 신미림이 투자해 만들어진 곳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당대의 스타들이 홍보를 위해 찾아오면서 스타폴장은 1980년대 가족 나들이 장소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릉폴장은 스타폴장보다 조금 작은 규모였지만 역시 인기가 많던 피서지였습니다.

정릉계곡 주변의 수영장들은 연일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수영장 소독약품과 주위 매점에서 나온 오물과 쓰레기들이 계곡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3년 스타폴장, 1995년 정릉폴장이 철거되면서 정릉계곡에 있던 수영장들은 추억 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산은 맑은 물을 회복하여 여전히 등산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도끼를 통해 잠시나마 눈과 마음이 시원해졌길 바라며 하루빨리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 1 경향신문 1971년 7월 24일 스타폴장 개장 홍보
- 2 경향신문 1974년 8월 23일 토끼소녀를 스타폴장 나들이 이미지
- 3 동아일보 1972년 7월 15일 스타폴장 광고글

〈사진3〉 1970년대 스타폴장 광고 〈출처: 정릉2동 마을계획단, 2017, 『정릉 마을책자 정릉마을한바퀴』, 성북구청, 82쪽〉



〈사진4〉 1995년 정릉가든 폴장(좌)과 2019년 가든폴장이 철거된 자리의 모습(우) 〈출처: 국립공원 역사아카이브〉

삼선초등학교

이 글은 9월 4일 금요일에 게재한 27번째 금도끼 '삼선초등학교'의 내용이다.

글 : 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 팀장)

삼선초등학교는 1949년 9월 1일에 전교생 1,032명 16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지난 5월에 소개해 드린 정릉의 송덕초등학교가 1945년에 개교했는데 비슷하게 오래되었죠? 1950년에 본관 교사를 신축하였고 이 목조건물은 1983년에 철거됩니다. 이듬해 1984년 본관 교사를 3층 건물로 개축하고 동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청각기록물이 여럿 남아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수집한 기록물 중 일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1〉은 1955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경동중·고등학교 쪽에서 삼선초등학교를 바라보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바로 앞에 보이는 기와집은 가정집으로 보이고, 담장 너머 천막 지붕처럼 보이는 것은 교실로 사용되었다는 천막으로 보입니다. 운동장 너머 2층 기다란 건물이 1950년부터 1983년까지 이용되었던 본관 건물입니다. 건물 뒤의 언덕은 현재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진1〉 1955년 삼선초등학교 본관 건물과 산기슭의 천막 시설 〈출처: 성북구청〉



〈사진2〉 1955년 삼선초등학교 간이화장실
〈출처: 성북구청〉



〈사진3〉 1955년 삼선초등학교 운동장 및 천막 교실
〈출처: 성북구청〉

〈사진2〉와 〈사진3〉 역시 1955년 촬영 사진입니다. 〈사진2〉를 보시면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책가방을 메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사진3〉에서는 운동장 끝의 천막 교실과 언덕 위의 경동중·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선초등학교의 옛모습은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1967년도 'KTV 대한뉴스 제649호'라는 영상입니다. 당시 삼선초등학교 윤정석 교장 선생님이 소파상(방정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새싹회에서 제정)을 수상합니다. 뉴스에서 교장 선생님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면서 당시 삼선초등학교의 교실 내부와 운동장 모습을 비춰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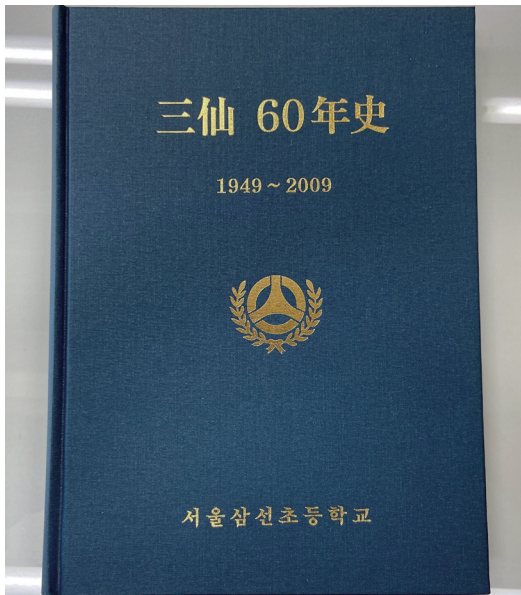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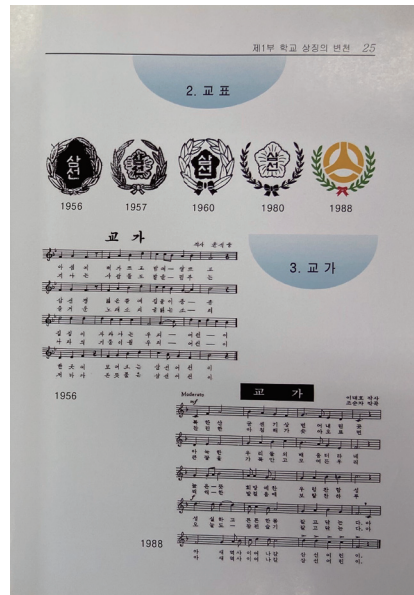
〈사진4〉 대한뉴스 제649호-토막소식 영상 캡처 1
〈출처: 유튜브 KTV대한뉴스〉



〈사진5〉 대한뉴스 제649호-토막소식 영상 캡처 2
〈출처: 유튜브 KTV대한뉴스〉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도 시험을 봤는데요. 윤정석 교장 선생님과 중학시험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아래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제자 가운데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중 합격생과 중학에 떨어졌던 사람이 수적으로 거의 같은 정도”라고 말한다. 수재라고 해서 일류 중학을 나온 사람은 그저 그런 정도로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 번 낙방의 경험이 있던 어린이 가운데는 후에 남이 안한 독창적인 사업을 해서 스승을 감탄시키는 일이 많다고. (경향신문 1967년 12월 4일 1면)



〈사진6〉 『삼선 60년사』 표지와 『삼선 60년사』에 실린 옛 교가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진7〉 1997년 삼선초등학교 졸업식 <출처: 성북구청>

삼선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역사를 담은 중요한 문헌 기록물인 『삼선 60년사』라는 책을 제작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3쪽에 1956년부터 1987년까지 불린 교가가 실려있는데요, 가사에 “삼선평 넓은 뜰에 짐들이 총-총”이라는 구절에 삼선동의 옛 모습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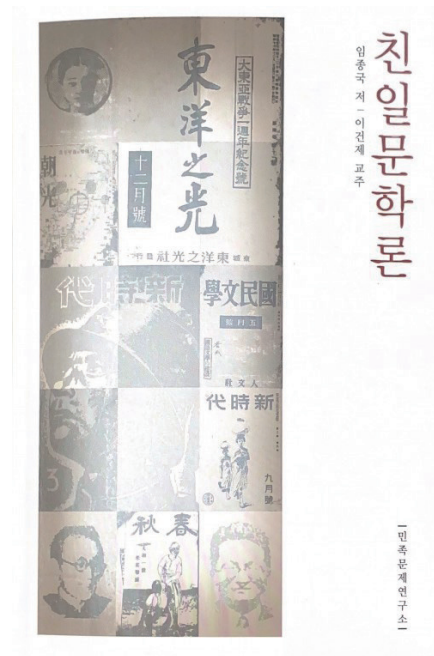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록물은 1997년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1984년도에 개축한 본관 건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2012년에 이 본관 건물 뒤로 삼선SK뷰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이 글은 11월 13일 금요일에 게재한 36번째 금도끼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의 내용이다.

글 : 김진흠(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11월 12일은 성북구에서 거주했던 시인이자 평론가이며, 친일문제를 연구한 역사학자 임종국(林鍾國) 선생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임종국은 1965년 6월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일본의 한국 재침탈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제침략사와 친일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분입니다. 그는 1966년 8월, 일제말 전시체제기의 동원정책과 그에 부역한 친일문인, 또 그들의 작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친일문학론』을 펴내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특히 책에서는 천도교 시국대처부 총무와 국민총력 천도교연맹 이사를 역임하였던 부친 임문호(林文虎)의 친일 행적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친일문학론』은 일제강점기 연구와 친일파 연구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사진1〉 집필 중인 임종국 선생과 『친일문학론』의 표지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1929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임종국은 성북동 58-19번지에 살면서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녔고, 이후 「비(碑)」, 「자화상」 등의 시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북로의 인도에는 '임종국 집터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종국의 집은 시인 조지훈이 거주했던 집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임종국은 조지훈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고대문화회 회원으로 조지훈의 지도를 받으며 『한용운 전집』 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지훈은 1960년 임종국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서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1960년대에는 하월곡동 90-1547번지에 거주하였습니다. 본가는 송천동(현 길음3동)에 있었고, 하월곡동으로 분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친일문학론』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친일연구를 진행하여 『일제침략과 친일파』, 『일제하의 사상탄압』, 『친일문학작품선집』, 『친일 논설집』 등 다수의 저작물을 출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친일문제를 다룬 여러 저서를 집필하던 중 1989년 11월 12일 폐기종으로 타계하였습니다.

임종국의 유지는 후학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자료 수집을 거쳐 철저한 실증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반민족문제연구소'가 1991년 설립되었고, 이 연구소는 1995년에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친일 청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상하는 '임종국상'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는 『친일인명사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2〉 임종국 집터 표지석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진3〉 임종국의 결혼식, 주례 조지훈 〈출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나빌레라, 지훈의 100년』, 2020, 139쪽〉

“우리가 불과 35년으로 이 지경까지 타락했었다는 것은 단순히 친일자들의 수치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민족 전체의 수치로서, 맹성은 물론 환골탈태의 결사적 고행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온존된 일제의 잔재는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민족의 정기를 쪼먹었고, 민족의 가치관을 학살하였다. 이 흙탕물을 걷어내지 못하는 한 민족의 자주는 공염불이요, 따라서 민족의 통일도 백일몽이다.”

(임종국 선생 유고에서)



〈사진4〉 친일인명사전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의 자주와 민족의 통일을 그렸던 임종국 선생의 흔적이 성북구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임종국 선생의 기일을 맞아 그가 남긴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저서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임종국과 임종국 집터, 조지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북공간

한국 현대조각 거장의
숨결이 담긴 그 곳,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글 : 이유선(최만린미술관 학예연구사)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전경 © 이정훈



좁다란 정릉의 골목길, 즐비한 주택들 사이에 붉은 벽돌과 오랜 세월을 품은 듯한 나무 대문이 인상적인 이곳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이 지난 2020년 8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만린’이라는 이름 석 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품을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마주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최만린의 조각은 우리 주변에 친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세계 평화의 문 앞의 올림픽 기념조형물을 비롯하여, 일산 호수공원과 헌법재판소 로비의 〈0〉 연작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태 86-9-2〉, 천안 독립기념관의 〈통일염원의 탑〉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추상 조각의 거장 최만린 조각가가 30년 이상 삶과 예술을 더불어 품어왔던 공간이 이곳 정릉 주택가에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미술관으로 변모하였는지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최만린미술관의 탄생부터 그 의미까지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 작은 공간이 전하는 커다란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만린미술관 전경 내부 © 텍스처온텍스처

정릉동은 지리적으로 한양도성과 멀지 않으면서도 북한산의 능선과 골짜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물길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어난 곳으로, 자연과 더불어 서민적 정서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자취가 담겨 있는 동네입니다. 박고석, 한묵, 이중섭과 같은 미술가들은 1950년대 중반 이곳에 터를 잡으며 주변 풍경을 화폭에 담았고, 문인(文人) 박화성, 계용묵, 박정리, 신경림을 비롯하여 음악가인 금수현, 김대현 등은 민족의 가슴에 애상(愛賞)되는 작품을 다수 남겼습니다. 이처럼 정릉은 서민적인 정서와 예향(藝鄕)으로서의 정취를 동시에 지니며 한국적인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우던 터전이었습니다.

최만린 작가는 조각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던 시기인 1963년 이곳 정릉동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지금의 서경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여든 평 남짓의 땅을 산 후 하얀 담 위에 빨간 기와를 올린 13평 작은 집을 손수 지었는데, 당시 동네 주민들은 이국적인 느낌의 이 집을 ‘불란서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릉이라는 곳이 풍수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방값도 싸고 모든 게 싸서 그 때 그 정릉 골짜기에 문인과 작가들이 더러 있었거든. 생각해보니, 작은 새나 작은 동물도 자기 스스로 다 동지를 만드는데 사람인 나도 셋집만 찾아가지 말고 동지를 짓자, 그런 마음으로 정릉 골짜기에 들어갔죠. (중략) 내 손으로 그 조그마한 집을 2년 걸려



미술관 내부 정원 조각 전경 © 스톤김

서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¹

그로부터 십수년 후 1980년 정릉 일대 택지개발로 인해 ‘불란서집’은 허물어지고, 최만린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 출신인 조국정 건축가의 설계로 지은 두 번째 집 정릉3동 716-17 번지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한편 그의 옆집이자 현재 최만린미술관의 전신이 된 716-16번지는 1970년에 지어진 건물로, 붉은 벽돌의 외관, 건물 내부 아치형 문틀과 사선의 높은 나무 천장, 보이드 구조의 복층 형태가 독특한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재료지만 개성이 충분히 담긴 이곳은 무엇보다 층고가 높아 조각 작품을 하는 그에게 작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보였기에 1988년부터 그는 이 집을 작업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이 공간은 최만린 작가의 삶과 예술적 여정 안에 함께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술가가 직접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해온 가옥은 작품의 시작점인 구상부터 스케치, 작품 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예술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으로서 의미가 큼니다. 그러한 예술적 자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최만린미술관은 작가의 거주공간이자 아틀리에로 이용되어 오면서 건물 내·외관이 잘 보존되어 있었을 뿐 아

1 최만린, 《정복의 조각가들》전 인터뷰 중, 2017

나라, 소중한 작품들을 기꺼이 지역을 위해 기증하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확고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지역 미술관과 예술가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보가 어우러진 덕분에 기존 환경 그대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존경어린 감사가 쌓여 소중한 의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최만린미술관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개관 과정 역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 선례를 남긴 곳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하나씩 품어가며 탄생시킨 공간답게, 이 작은 미술관은 예술가의 깊은 숨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미술관의 첫 개관전시로 열리고 있는 <흙의 숨결>전은 최만린 작가가 정릉동에 뿌리를 내리게 된 시기와 맞물려 한국의 조각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생명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시 제목인 ‘흙의 숨결’은 평생 흙을 다루며 작품 활동을 해온 최만린 조각가의 작품 세계와 더불어 작가로서의 우직하고 한결 같은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만린은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로서 한국 조각의 정체성에 관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고심하고 이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는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을 추상의 형태에 담아내오면서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조각과의 첫 만남은 경기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미술교사였던 박승구의 권유로 조각반에 가입했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5세의 나이에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최연소 입선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면서도 집안어른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에 대해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만린은 마음의 길을 따라 서울대 조소과에 입학하여 김종영, 김세중 등을 사사했고 당시 전쟁을 겪은 대부분의 젊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

“최만린은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로서 한국 조각의 정체성에 관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고심하고 이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는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을 추상의 형태에 담아내오면서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O 12-9>, 2012, 석고, 16×15×14cm © 이정훈



최만린, 1969, 상, 테라코타 © 이정훈

를 거듭하였습니다. 작품 〈이브58-1〉(1958)는 조각가로서 최만린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중요한 작품으로, 전후(戰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인간이자 생명의 끈질긴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최만린미술관의 주요 소장품 중 하나로 전시실 내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상세계로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천〉(1965)과 〈현〉(1966), 1970년대 이후 동양적 우주관과 세계관을 나타내는 〈천지 71-1〉(1971), 에너지의 순환 원리와 생명의 질서를 나타내는 〈태 79-15〉(1979), 채움과 비움의 상보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0〉연작에 이르기까지 최만린 작가의 60여년 작품세계를 망라하는 주요 작품 126점이 최만린미술관에 보관 및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찰흙을 가지고 이런저런 형상을 만드는 조형의 기본처럼, 최만린 작가의 마음속에 계속 가득 차서 떠오르는 심상들을 흙으로 빚어놓은 것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가 이토록 우주의 원리와 생명이나 자연의 이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그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6.25전쟁 이후에 고통과 절망의 분위기를 온 몸으로 겪어온 세대로서 좌절을 극복하고 그 위에 희망을 재건하는 생명의 힘과 우주의 원리에 관해 깊이 천착해온 탐구의 결과물이 바로 흙으로 빚어낸 그의 작품들인 셈입니다.

최만린은 스스로가 표현하고자 했던 생명의 경이로움과 기의 순환 등 동양철학의 근본 원리를 먼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작은 풀 한포기와 돌에 낀 이끼, 작은 벌레, 마당을 드나드는 새, 길고양이 할 것 없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작품과 마찬가지로 각별한 눈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내서인지 최만린미술관에 놓인 조각 작품들은 하나같이 자연의 일부처럼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놓인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울림, 이 곳 최만린미술관에서 만나는 그의 작품이 더욱 특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품 뿐 아니라 그가 60여 년간 직접 수집하고 기록해온 상당수의 아카이브 자료들 역시 최만린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자료이자 당시의 미술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의미 있는 기록물입니다. 연계 프로젝트인 〈오픈 아카이브: 꾸며 쓰지 않은 자서전〉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최만린 아카이브의 서막으로서 작가의 생애와 이력, 작품 판매 및 환경조형물에 대한 에피소드 등을 당시 수집한 사진, 리플렛, 문서들로 구성해 전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술 컬렉션들을 통해 최만린 미술관은 앞으로도 전시를 위한 공간이자 한국현대조각의 전문 아카이브기관으로서 활발한 연구를



오픈아카이브 전경 © 이정훈

위한 장(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가까이 자리한 미술관인 만큼 음악회와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미술관으로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사회와 다변화되는 현대미술의 모호함 속에서 조각의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 자칫 지루하고 투박해 보일 수 있는 ‘흙을 빚는 작업’들은 오히려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와 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근원적 힘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철학을 조형화한 최만린 작가의 작품들은 생전 그의 바람처럼 미술관을 방문한 이들에게 조용하고도 선명하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길을 가라”고, 작은 공간이 품은 그 커다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1

역사학자 김성철, 6·25 당시 정릉동의 일상을 담다

- 김성철의 『한 사학자의 6·25일기 - 역사 앞에서』(1993, 창작과비평사)를 중심으로 -

글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1964년 무렵 미아리고개 확장공사 사진.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아리고개는 더 좁은 언덕이었을 것이다.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한다.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진다. 희생자는 전투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무고한 민간인들도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다. 선악으로 전쟁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쉬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전쟁의 상처에는 선악이 없다. 그것이 전쟁의 무서운 점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상의 파괴이다. 일상은 평소에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큰 부분이 무너진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조금이나마 일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하는 중이기도 하다. 전쟁의 피해 중 다른 하나는 공포가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모든 생명에게 가장 큰 공포이다. 이것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넘은 그 무엇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전쟁은 비극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 6·25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 질 때까지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한국군만 149,005명이 전사했고, 7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을 포함하면 한국 측의 피해는 사망 522,604명, 부상 940,408명, 행방불명 303,212명에 이른다. 북한 측의 피해도 컸다. 군인과 민간인 포함 70만명 가량이 죽었으며, 18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80만 명 가량이 행방불명됐다. 합쳐 120만 명 이상이 죽고, 120만 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270만 명 가까이 부상당한 것이다. 연합군과 중국군 등 전쟁의 참여한 외국군들의 피해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에게 비극이었음은 틀림없다.

이 비극의 와중에 일상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다. 바로 역사학자 김성철이다. 1913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고보에 재학 중이던 1928년 독서회 사건으로 1년간 복역을 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1941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46년 경성대학으로 바뀐 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해방 이전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다. 그리고 그 일기는 6·25 당시에도 계속되었다. 당시 성북구 정릉동에 살던 김성철은 서울대 사학과 교수이기도 했다. 그의 일기는 전쟁 이전의 일상부터 전쟁 중의 변화, 특히 일상이 무너지고 공포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전쟁의 최전선이 총알이 오고가는 그 현장만이 아니라, 전쟁을 겪는 모든 사람의 현장이라는 것을 일기는 잘 보여준다.

1. 한국전쟁 이전의 생활

6·25 이전 그의 삶은 ‘평범’이라는 말로 표현 가능하다. 생계를 걱정하고, 취업을 하고, 사람을 만났다. 일하는 곳에서 있는 분란도 일기는 담담하게 적고 있다. 그의 일기에는 생활상이 생생하다. 일부를 보자.

나와서 철(哲)군을 만난 양으로 혜화정 가는 전차를 타려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그만두기로 하고 신당정 서정렬(徐廷烈)씨 댁에 가서 하룻밤 묵었다. 하도 출가에 흥차 한 잔을 마셨더니 값이 5원, 이즘 물가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1945년 12월 6일).

정거장마다 승객도 밀리지만 그보다도 음식점장사가 더 많아서 엿장수, 김밥장수, 떡장수, 술장수, 국수장수, 담배장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심지어 냉수를 떠다주고 50전씩 받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1945년 12월 14일).

위의 일기를 보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차, 홍차 한 잔의 가격, 정거장의 풍경과 물을 떠서 파는 아이들의 모습 등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차는 당시의 대중교통의 사정과 전기 수급 문제를 보여준다. 홍차는 당시의 물가를, 정거장의 모습은 다른 산업이 없으니 모두 음식점장에 나갈 수밖에 없던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그가 현재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대학 법문학부에 복학한 것은 1945년 12월이었고, 그때 서울로 다시 올라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성북구 돈암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46년 3월 19일 전후로 보인다. 그날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돈암정 154의 10호에 10만원으로 집 한 채를 계약하고 그동안 대구의 정용(正容)을 불러다가 지키는 한편 북덕방 남형우씨에게 부탁해서 수리를 하는 중이다(1946년 3월 19일).

그는 복학 이후 계속 서울대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졸업 후 바로 서울대 조수(助手)가 되었으며, 1947년에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학과 조교수가 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현재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 있었다. 아마 그는 더 가까운 혜화동이나 명륜동에 집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곳들은 사대문 안이라 집값이 비싸 집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돈암동은 자신의 현실과 출퇴근 거리를 고려한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수리를 하고 집에 들어간 곳은 4월 7일이었다. 그는 그때의 감격을 ‘이제 평생 처음으로 삼간두옥(三間斗屋)이나마 내 집이라고 구해 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년이 지난 1947년 봄, 김성철은 정릉리 아랫마을로 이사를 가고 그 이듬해인 1948년 정릉리 윗마을 손가장(정릉리 362번지)으로 다시 이사한다(부인 이남덕 여사의 회고). 그가 전쟁을 맞이한 것은 바로 그 손가장에서였다.

학자로서의 생활도 일기에는 담겨 있다. 김상기 교수에게 졸업논문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1946년 4월 9일), 학생들과 함께 연구발표회에 참여하기도 했다(1946년 4월 13일).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일기에 쓰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재미있게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숨기지 않고 있다(1946년 3월 25일, 3월 26일).

2. 미아리고개 전투와 김성철

이런 학자의 일상이 깨어지는 것은 1950년 6월 25일부터의 일이다. 그는 6월 25일 당일 가갯집 주인 강군으로부터 38도선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와 남진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당시 38도

선 주변에서는 계속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일기 마지막은 ‘쌀값이 소두 한 말에 3천원의 고개를 바라보게 된’ 민생고를 걱정하며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27일 그는 미아리고개에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이때부터 피난민의 행렬도 나타난다. 결국 전선이 미아리고개까지 내려오자 그는 급하게 몸을 피한다. 당시의 모습은 일기를 그대로 적는 것이 더 생생하다. 일기의 내용을 보자.

한 시간 전까지도 골목길에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이 낮때가 가까워질 무렵엔 이미 피란 모퉁이를 들쳐업고 마을 앞 행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미처 진지를 구축할 겨를도 없이 앞산에선 대포를 걸어서 불을 뿜고 있고, 전선에서 물러나온 병정들인 듯 모자에 풀을 담뱃 꽂은 군인들이 한 두 사람씩 산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그들의 맥 빠진 몰골로 하여 모든 것이 짐작이 가지만 북에서 수없이 밀려 내려오는 탱크는 이쪽 대포알이 아무리 명중 하여도 움쩍도 않는다는 그들의 보고 온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불안의 남뎡이를 던져주고 가는 것이다.

(중략)

이때는 이미 산등성이마다 병정들이 진지를 다지고 지향을 집을 수 없는 포화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나는 안어른에게 아이들을 가보아야겠다 하고 미처 붙잡을 사이도 없이 미끄러지듯 그곳을 빠져나와서 성북동임직한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산비탈은 걷고 등성이에선 기고 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늘어선 총부리와 총부리 사이를 더듬어서 겨우 성북동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중략)

그러나 문득 치어다보니 맞은편 낙산 성벽을 의지하여 아군의 대포가 자리잡았고 산 위엔 병정들이 즐비하게 깔리어있다. 저편의 대포알이 필시 이 포진지를 겨냥하여 날아올 것을 생각하니 그 바로 앞자락인 정용의 집으로 온 것은 그야말로 대포알을 마중나온 것이나 진배없다. 아내와 이 일을 의논하고 경동중학 앞 이극원 씨 댁으로라도 옮겨갈까 하는 참에 어디서인지 대포알이 횡하니 날아와서 흙먼지를 말아올리고 그러고는 거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끊어졌다. 우리는 마침내 이 위험한 지대에서 난리의 첫날밤을 새우게 되었다.

(1950년 6월 27일)

위의 내용을 보면 전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침나절에는 북에서 온 피난민이, 곧이어 군인들이 몰려왔고, 나중에는 낙산 바로 밑에까지 전선이 밀려왔다. 김성철은 가족과 함께 피난할 시기를 놓쳤고, 결국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북한군에게 빼앗겼다.



역사학자 김성철(1913~1951)의 가족 사진. 맨 왼쪽이 김성철의 모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공

3. 교수 생활의 변화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인민공화국)으로 바뀐 것은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이후 이념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나뉜 것은 땅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제주에서 일어난 4·3, 그 여파로 일어난 여수·순천사건 등은 이념의 대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었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이데올로기가 낳은 상처와 그로 인한 적대감은 전쟁 중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그것은 교수사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민군은 교수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와서 총구를 들이대고 위협했으며 ‘남반구의 대학은 반동의 소굴’이라며 호통하고 조롱했다. 그리고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가르치는 김구경 교수를 찾아와 교수들 앞에서 ‘학생들을 때린다’는 핑계로 죽이려고 하기도 했다. 다행히 김구경 교수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전쟁 중 실종되고 만다(1950년 7월 1일). 김성철 역시 이 풍랑을 넘어가지 못했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1950년 8월 9일의 일이었다. 같은 과 교수인 김상기 교수가 직접 그 소식을 전하러 왔다.

4. 마을과 일상의 변화

동네의 모습도 금세 바뀌었다. 마을에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으며(1950년 7월 2일), 집마다 인민공화국기가 나부끼기 시작했고, 김성철 역시 인공기를 그려서 달았다(1950년 7월 3일).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느 편에 분명히 서는 것을 주저했다. 김성철의 일가 청년인 김익현은 인민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없었다. 그의 걱정은 인민위원회에서 일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1950년 7월 14일).

인민재판도 일어났다. 재판은 어떤 형식도 없었다. 따발총을 맨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반동분자요?”하고 묻고 몇 사람이 “악질 반동분자요”라고 답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 죽이는 식이었다. 결국 구경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떤 반동 행위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1950년 7월 5일). 사람들은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나갔다. 김성철의 아내 이남덕도 경신학교 뜰에서 열리는 농미조합 창립총회 등에 참석했다. 남성들이 나가면 의용군으로 갈 수 있으니 노인과 여성들만 참석한 것이다(1950년 7월 15일).

사람들이 변하기도 했다. 가장 앞에 언급한 철(哲)은, 김성철과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김성철은 그의 결혼은 물론 투옥되었을 때도 도와준 사이였다. 그런 그가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시 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에서 일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문제는 김성철이 찾아갔을 때, 분명히 자리에 있음에도 만나주지 않은 것이다. 김성철은 이것이 매우 서운했다. 그와의 인연부터, 그날의 섭섭한 일까지를 매우 길게 일기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1950년 7월 20일).

인민위원회 선거도 이루어졌는데, 김성철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선거 한다’는 선전에 살짝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것이 입후보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토론이라고는 약력 소개에 그치고, 투표는 거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다. 그리 이념적이지 않았던 그는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점차 실망하게 된다(1950년 7월 26일).

전쟁은 일상을 쉽게 되돌려 놓지 못했다. 7월 28일을 전후로 전차가 다시 다니기 시작했으나 빈번한 공습으로 탕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해서 자칫하면 걷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8월이 되니 공습은 더욱 심해졌다. 처음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폭격을 했지만 정릉도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1950년 8월 4일). 인민군은 김성철이 키우던 강아지 ‘비이루’를 공출을 핑계로 잡아가 먹기도 했다.

5. 공포의 일상화

더 중요한 것은 공포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의 일기를 보자.

세상이란 참 우스운 것이다. 나는 별반 죄지은 기억이 없고, 또 나를 아무도 잡으려 다니는 사람이

“세상이란 참 우스운 것이다. 나는 별반 죄지은 기억이 없고, 또 나를 아무도 잡으려 다니는 사람이 없건만, 나는 공연히 겁을 내어 세상을 비슬비슬 피해 다니는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어떠한 한계의 사람이 반동으로 물리는 것인지, 또 물리면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어떠한 처단을 받는 것인지? (1950년 8월 16일).

없건만, 나는 공연히 겁을 내어 세상을 비슬비슬 피해 다니는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어떠한 한계의 사람이 반동으로 물리는 것인지, 또 물리면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어떠한 처단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모두 분명치 아니하고 정치의 필요에 따라, 또 더러는 그 많은 꼬나폴들의 감정 여하에 따라 아무라도 언제든지 반동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며, 또 한 번 몰리고 보면 그때그때의 객관적 정세의 변동 여하에 따라, 또 더욱 불안스런 것은 국(局)에 당(當) 사람의 판단이랄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기분 여하에 따라 어떻게라도 처단되는 것이다. (중략) 누구나 얼마쯤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정부의 하는 일에 무조건 백지위임장을 써 바치지 아니할 수 없는 … 어떠한 의미에 있어선 정치 기술로서 만점일지도 모른다(1950년 8월 16일).

불안의 이유는 분명했다. 반동의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 어떤 경로로 처벌이 결정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즉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는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숨는다. 서울이 함락되고 두 달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다. 공포의 일상화와 그 이유를 그의 일기는 분명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그의 은둔 생활은 9월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9월 16일, 그는 대포소리를 들었다. 9월 15일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이 바로 다음날 서울까지 감지된 것이다(1950년 9월 16일). 며칠이 지나자 대포소리는 더 가까워 오고 김성철은 기대에 부풀다(1950년 9월 20일). 그리고 그는 곧 인민군의 후퇴 소식을 듣는다.

밤이면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자동차와 화물차가 쉴새없이 북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도 벌써 여러 날 밤 켜인데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물이 흘러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밤마다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걸려서 끌고 가는데, 보아하매 상당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으나 꼬지 꿰뚫 줄에 엮어서 강행군을 시키고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욕설을 퍼붓고 채찍으로 갈기며, 무덤이 고개를 넘어서는 저영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리고 간다는 것이다(1950년 9월 23일).

위의 이야기는 비록 전해들은 것이긴 하지만 매우 생생하다. 이즈음을 기해서 조소앙, 안재홍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는 이때의 일을 담고 있다. 포성은 점차 가까워지고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1950년 9월 27일). 그리고 서울이 수복된 9월 28일에는 사람들이 인민군이 놓고 간 군수물자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인민군이 후퇴하고 UN군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의 일기는 1951년 4월 6일을 마지막으로 끝난다(2018년 창비에서 나온 최신판에서는 4월 8일). 인공 치하의 공포를 맞본 그는 1950년 12월 1·4후퇴를 앞두고 가족과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그리고 1951년 고향 영천에서 괴한의 저격으로 죽는다. 비록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일기는 전쟁의 참상, 일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특히 돈암동, 정릉동, 혜화동 등 자신이 활동하던 곳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쟁시기의 일상사는 물론, 지역사의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

※ 『역사 앞에서』 판본에 대하여

『역사 앞에서』의 판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1993년 나왔다. 이때의 부제는 ‘한 사학자의 6·25일기’이다. 고병익 전 한림대 교수, 정기돈 전 충남대 교수, 강신항 전 성균관대 교수, 그리고 김성철의 부인인 이남덕 전 이화여대 교수가 그에 대한 회고를 남겼다. 이남덕 교수는 첫 번째 책을 엮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2009년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때는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가 편집 및 해제를 맡았다. 마지막은 2018년에 출간되었다. 이때의 부제는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역사학도의 일기’였으며, 역사학자이자 고인의 아들인 김기협 박사가 해제 및 편집을 맡았다. 세 권 모두 창작과비평사(창비)에서 출판되었다.



역사 앞에서(양장 보급판)

김성철 지음
2018.06.15
16,000원



역사 앞에서(개정판)

김성철 지음
2009.06.25
16,000원



역사 앞에서

김성철 지음
1993.02.10
12,000원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2

이쾌대와 성북회화연구소

글 : 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성북문화원 앞 이쾌대 벽화



한국 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는 이쾌대는 1988년 10월 월북 미술인 해금 조치에 의해 복권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쾌대는 1913년 경북 칠곡군에서 태어나 1928년에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며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휘문고보 5학년이었던 1932년에 조선미술전람회전에 <정물>이 입선하며 미술계에 등단하였으며 이듬해 졸업을 하고 아내 유갑봉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해방 이후에는 성북회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그에 관한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지난 2004년 발행된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있는 성북회화연구소 출신 작가들의 좌담회(2001년 11월 21일 진행)¹ 구술녹취문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성북회화연구소의 운영 상황과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북회화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화백 이쾌대 남관 이인성 등 전부 七씨를 지도교사로 하여 서울 돈암동 458-1에 성북회화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연구부문은 유화, 수채, 파스텔이라 하며 입소자격은 학교 출신 유무를 불관하고 소질에 치중하리라 한다.

『성북회화연구소』, 『경향신문』 1947.09.12.

위 기사에 의하면 성북회화연구소는 1947년 9월, 돈암동 458-1(현 성북구 보문로39길 34)에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료를 통해 이 시기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때이고, 연구소는 1946년에 이미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숙진 : 40평 조금 넘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양반이 제작실로 빌려 가지구 쓸라고 하다가 우리가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몇 명 더 불러서 하자 그래 가지구 인제, 그때 사례금이라고 해봤자 그거 코 묻은 돈.

남경숙 : 그때 600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겠어. 나는 생각이 나. 나는 내가 냈어.

심죽자 : 생각이 안 나.

김숙진 : 뭐 지금 생각하면 아주 조족지혈(鳥足之血)이야. 그 양반도 명목상으로 받았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32쪽〉

남경숙 구술, 2001. 3. 16

남경숙 : 당시 이 연구소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작업하기 위한 것이어서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몰랐구요. 연인원(전체 인원)은 많았지만 한 번에 나오는 사람은(시간을 정해놓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1 좌담회 구술자 : 김서봉, 김숙진, 남경숙, 심죽자, 이영은, 이용환, 장성순, 전희진, 정정희.
면담자 : 이구열, 김철효, 원혜준.



성북회화연구소가 있었던 자리

편한 시간에 이용) 많지 않았어요. 겨울이면 나무 때는 스토브가 하나 있었는데 회비도 있었지만, 난 꼬박꼬박 내었지만, 대부분 거의 안 내고들 다녔고... 이쾌대 씨가 사재를 털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32~133쪽〉

박순일 구술, 2000. 10. 13.

박순일 : 말하자면 판자집 같은 데였어요. 바깥에서 안이 보이고 안에서 바깥이 보이는 그런 건물에 2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돈으로 한 5만원 정도 났을까 싶어요.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34쪽〉

위 증언을 통해 성북회화연구소는 이쾌대가 대작을 제작하기 위한 개인 화실 목적으로 구했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인근에서 그림을 그릴 공간을 찾고 있던 김숙진과 친구들이 북덕방 주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쾌대를 찾아가 그곳에서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둘씩 연구생을 받게 되어 성북회화연구소가 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성북회화연구소를 비롯하여 남산연구소, 이국전회화연구소(정성미술연구소), 배운성연구소, 남관미술연구소, 중앙회화연구소 등 여러 미술교육 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성북회화연구소에서는 적극적인 미술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² 또한, 당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이쾌대가 운영을 맡아서인지 다른 연구소를 다니다가 성북회화연구소로 옮긴 연구생도 있었으며 학교 선생님의 소개, 이사 등의 이유로 입소한 경우도 있었다.

성북회화연구소를 이쾌대 외 6씨의 지도로 작 10일부터 개소하였는데 연구부문은 석고상, 인체, 정물(유화, 수채, 파스텔) 등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에 걸쳐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정가지도 외에도 응한다하며 입소비 300원 매월 연구비가 300원인데 회화자료는 각자 부담으로 입소희망자는 수시 동 연구소인 돈암동 458의 1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한다.

『성북회화연구소』, 『한성일보』 1947.09.13.

위 구술 내용을 통해 이쾌대가 성북회화연구소를 생계수단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미술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한성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입소비, 연수비가 각각 300원이라고 나와 있다. 1947년 9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백미 소두 한 말(약 8kg)의 가격이 550원에서 600원 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³ 입소비와 연구비가 있었지만, 당시 연구생이었던 남경숙의 증언을 통해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연구소의 크기는 약 40평 정도에 판잣집의 형태였다고 하는데 그 크기를 고려하면 연구소 건물은 나무로 된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이영은 : 난 ‘조선미술연구소’(조선미술연구원) 잠깐 다녔어.

김철호 : 그럼 거기가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김서봉 : 그게 내가 ‘이쾌대연구소’(성북회화연구소) 가기 전이니까 48년?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23쪽〉

또한, 연구소의 명칭을 ‘성북회화연구소’가 아닌 ‘이쾌대 연구소’로 부르기도 하는 연구생들의 증언을 보면, 당시 연구소의 설립은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하였지만 운영은 이쾌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한국미술기록보존소, 2004,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3』, 삼성문화재단, 118쪽.

3 「秋夕(추석)앞두고 物價騰貴(물가등귀)」, 『동아일보』, 1947. 9. 28.

시기별 연구소 분위기

돈암동 시기

연구소는 명륜동으로 한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운영 시기를 돈암동 시기와 명륜동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소가 돈암동에 위치했던 1946년부터 1948년까지는 이쾌대의 원래 목적인 대작의 제작과 더불어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숙진 : 한 번 심부름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시질 않고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서 스케치북 펴 놓고 HB 연필 빠르게 깎아서 군상 밑그림을 그려. 고무도 거의 안 써요. 몇 번 이렇게 하고 거기다 줄무늬 이렇게 해 가지구 큰 캔버스에다가 옮긴다구. 그래서 내가 그 바둑판무늬 이거 전부 줄치고 뭐 밑에 대상 하고 그 내가 심부름 참 많이 했는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38쪽〉

남경숙 구술, 2001. 2. 23./3. 16.

김철호 : 이쾌대의 군상은 해방 이전부터 그렸었나요?

남경숙 : 처음 연구소 문 열고 갔을 때 이미 그때 군상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일제대항’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항상 “한국의 르네상스를, 문에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예술가들이 기운을 돋구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44쪽〉

위 내용을 통해 이쾌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군상〉 연작의 작업이 돈암동 성북회화연구소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생들을 받게 되면서 연구소의 본래 목적이었던 개인 화실로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연구생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캔버스를 세워 놓고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연구소는 현재의 입시 학원과는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연구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대학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연구소를 거쳐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등에 입학하기도 하였으며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연구소에 찾아와 그림 연습을 한 연구생도 있었다고 한다.⁴

김철호 : 근데 서울에 있는 연구소들 중에서 ‘성북회화연구소’가 가장 컸구. 그런데...

김숙진 : 예, 활발했죠.

남경숙 : 활발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쾌대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정열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4 국립현대미술관, 2015,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 돌베개, 380쪽.

김숙진 : 예! 맞았어요.

남경숙 : 모델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계획적으로 이번 주일에 뭐, 이렇게 칠판에 써 놓으시면, 이번 토요일 날 몇 시에 오면은 무슨 강의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임은 그분이 또 강의도 해 주시고.

김숙진 : 예! 그렇지.

심숙자 : 난 강의 들은 적이 없어.

정정희 : 나두 강의 들은 적이 없어.

남경숙 : 아니요. 거기서만 했어요. (돈암교 시절). 여기와선 안 했어요.(명륜동 시절) 거기선 아주 착실히 선생님께서...

전뢰진 : 해부학, 해부학 강의했어.

남경숙 : 네! 해부학도 하고, 예술론도 하고 모델도 쓰고. 그러고 또 저녁때면 이렇게 열 명이고 앉으면은 한 사람씩 나와서 앉으라고 그래 가지구 크로키를 했어요.

김숙진 : 그래, 그래 크로키했어.

남경숙 : 매일 밤마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정열적으로 지도를 하셨어요.

(중략)

김철호 :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처음에 실기 수업과정 데생하고 유화를 하셨는지?

남경숙 : 네, 유화했죠.

김철호 : 석고 데상이나 아니면 누드, 코스튬(costume) 이런 거?

남경숙 : 누드도 하고 코스튬도 했고,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37쪽〉

전뢰진 : 아까 학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지금 인상 깊게 남은 것이 뭐냐면 그분이 칠등신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

남경숙 : 네, 그걸 가르쳐 줬어.

이구열 : 칠등신.

전뢰진 : 칠등신이 뭔가 했더니 얼굴 하나 길이에 대해서.

김숙진 : 소위 해부학.

전뢰진 : “두 번째는 젖꼭지 있는 데고, 고 다음 세 번째는 배꼽 있는 데고, 네 번째가 치골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무릎인데 서양 사람들은 무릎 밑에서부터 길이가 길어서 팔등신에 되는 거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칠등신인데 여자분들은 육등신이다.” 그걸 가르쳐 줬었어요. 그때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남경숙 : 해부학에 대해서 해 주셨어.

전뢰진 : 이두박근이다, 뭐 삼두박근이다, 대퇴근이다, 무슨 뭐 이런 거 삼각근 다 가르쳐 주고...

김숙진 : 그 양반이 해부학을 많이 공부를 했어.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41쪽〉

이쾌대는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였으며, 특히 해부학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유학 시절 제국미술학교에서 자신이 들었던 강의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누드 모델을 불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수업을 쉽게 접할 수 없었

기 때문에 누드 크로키가 진행될 때는 많은 화가들이 연구소를 찾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유화나 석고 대생 등의 실기 수업도 함께 이루어졌다.⁵

수업 진행 시에는 연구생들의 그림을 직접 고쳐주기보다는 주로 살펴보며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대신했던 듯하다. 당시 연구생 중에는 이쾌대의 휘문고보 후배인 김진항(월북 미술인)도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연구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⁶

명륜동 시기

김숙진 : 내가 그 돈암교 있을 때 그 국회의원, 제헌 국회의원 홍성하, 홍성하가 그 아지테이션(agitation)하는 이름 듣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홍성하를 국회로!”하고 하든 게 저기, 저 돈암교 화실에서 내가 그거를 들었거든. 그러면 48년도란 말이야.

남경숙 : 그렇죠.

김숙진 : 48년도에 그 제헌국회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내가 밀엘 내려다보고 저건 뭐 하는 건가 내 그랬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러니까 48년이지. 그럼 거기서 이사 갔으면 48년 후반기쯤 이사를...

(중략)

남경숙 : 그 다음 혜화동으로 이사 갔죠?

이영은 : 이사 갔어.

김서봉 : 명륜동!

김숙진 : 명륜동 4가!

정정희 : 부속병원 건너편.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35~136쪽〉

앞서 말했듯이 연구소는 돈암동에서 명륜동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건너편으로 한차례 이전을 하였다. 1948년 5월 선거 당시 연구소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목격했던 연구생의 증언에 따라 선거 이후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명륜동 시절에만 연구소를 다녔던 권진규의 경우,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수·순천사건으로 인해 진흙을 구하러 가는 여행을 포기했다는 연구생 동료 김숙진의 증언이 있어, 명륜동으로의 이전 시기는 늦어도 1948년 10월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연구소의 이전은 1948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연구생의 수가 더 많아졌지만, 돈암동 시기와는 달리 해부학, 예술론 등의 강의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쾌대의 활동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가 당시 여러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8년 후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쾌대는 남한의 단독정부

5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앞의 자료집, 137-138쪽.

6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위의 자료집, 140쪽.

7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387쪽.

수립을 반대하고 자주적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문화예술인 330명 선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⁸ 하지만 남쪽에 우익 정권이 들어선 후 좌익 미술가로 분류된 이쾌대는 좌익인사들의 교화 및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된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 산하 미술동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쾌대를 포함한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사상전향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반공포스터를 그려 제출해야 했다.⁹ 1949년 11월 22일에는 자신이 결성한 조선미술문화협회의 해산을 선언해야 했으며, 1950년 1월 5일 반공주의를 내걸고 결성된 50년미술협회에 가입하게 된다. 외압에 의해 자신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쾌대는 이러한 일을 겪은 이후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고, 더이상 <군상>과 같은 시대성을 담아낸 대작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성북회화연구소는 문을 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⁰

성북회화연구소의 후신

김숙진 : 니시홍간지거든, 그게 아! 히가시홍간지(東本願寺)! 니시홍간지는 저 본정 쪽에 흥대 자리고, 이 히가시홍간지데 그게 적산이니까 이제 시(市)재산이거든! 그래 이해성씨가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거기 갔죠, 근데 거기 방이 여러 개고 제법 미술학교 시스템을 했어요.

김서봉 : 그래 공간이 넓었어.

김숙진 : 석고반, 인체반, 유화반, 도안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책임자들이 임명됐었다구.

김철호 : 그 이해성이란 분하고 이쾌대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

김숙진 : 친구지, 친구! 집도 신설동에 고 몇 집 건너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막역한 친구였었어.

김철호 : 그럼 이해성 씨란 분도 ‘성북회화연구소’ 있을 때도 같이?

김숙진 : 관계를 했어요. 지도는 별로 안 했지만 이쾌대 씨고 합자해서 그냥 연구술 맨들은 거야.

(중략)

김숙진 : 이게(시립미술연구원을 가리키며) 성북회화연구소의 후신이에요.

김철호 : 후신이요?

김숙진 : ‘성북회화연구소’가 폐소가 되고 그리 전부 옮겨갔어.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126~127쪽〉

위 자료를 통해 1950년 3월경 성북회화연구소가 문을 닫은 이후 무학여고, 경기중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미술 교육가 이해성의 적극적인 주도로 시립미술연구원(남산시립미술연구소)이 설립되며 성북회화연구소의 연구생들은 그곳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시립미술연구원이 성북회화연구소의 후신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처럼 연구생들이 모두 그곳으로 옮겨 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립미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해성 또한 한국전쟁 당시 월북하였기

8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386쪽.

9 국립현대미술관, 위의 책, 372쪽.

10 국립현대미술관, 위의 책, 387-389쪽.

에 이곳 또한 오랜 시간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북회화연구소 출신 예술가



조각가 권진규 (사진제공 : 권진규기념사업회)

성북회화연구소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키웠다. 김서봉, 김숙진, 남경숙, 심죽자, 이영은, 이용환, 장성순, 전뢰진, 정정희, 김창열, 황종례, 이완섭, 권진규 등의 예술가들이 이쾌대에게 지도를 받았으며, 이들은 회화, 조각, 섬유 공예, 도자, 사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남겼다.

이들 중 몇몇 예술가들은 이후에도 성북구와의 연을 이어갔다. 이쾌대의 지도와 그에게서 들었던 조각가 시미즈 다카시(당시 무사시노미술학교 교수)에 대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무사시노미술학교에 입학한 권진규¹¹는 이후 성북구 동선동에 자리를 잡고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김서봉은 1970년,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1989년 정년 퇴임 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황종례의 경우 1975년부터 1993년까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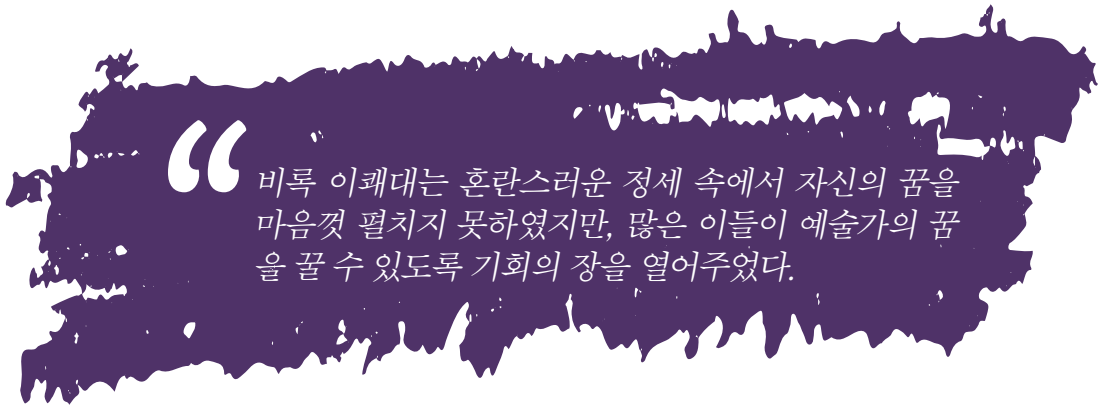
이쾌대의 월복과 그의 가족

한국전쟁 발발 이후 좌익 미술가로 분류되었던 이쾌대는 조선미술동맹 맹원으로 가담했고 이후 인민군 군대에 의용군으로 입대해 낙동강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였으며, 남북 포로 교환 때 남쪽을 떠났다. 중도 노선을 걸었던 그는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느꼈던 압박과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¹²

북으로 가기 전, 이쾌대는 보문동 한옥에 살았다. 한국전쟁 이후 북으로 간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내 유갑봉 여사는 그곳에서 네 자녀를 키웠다. 또한, 이쾌대의 작품을 부업 천장 다락에 보관해두었다고 한다. 이쾌대는 포로수용소에서 유갑봉에게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작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

11 권진규 사이버 미술관, <http://www.jinkyu.org/sub2.html>

12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372-373쪽.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작품들은 소중히 보관되었다. 이렇게 이쾌대의 가족들에 의해 보존되던 작품은 해금 조치 이후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다.¹³

성북회화연구소는 당시 설립되었던 사립 미술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미술학도들이 꿈을 키워 한국현대미술계에 굵직한 이름을 남겼으며 여기에는 이쾌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살펴본 기록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당시 성북회화연구소는 미대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다니긴 했지만, 현재의 입시 미술학원의 역할보다는 미술대학의 교육과정처럼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쾌대와 당시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동료 화가들의 공동 작업실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 이쾌대는 예술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키워 나갔을 것이다.¹⁴

성북회화연구소 출신 예술가들은 이쾌대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다. 비록 그는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연구소는 1946년 초부터 1950년 초까지 불과 4년 정도밖에 운영되지 못했지만, 한국 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13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402-403쪽.

14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앞의 자료집, 119쪽.

나비를 찾는 시간

- 토크콘서트 '비하인드 심우'를 돌아보며 -

글 : 백외준(성북문화원 연구과장)

보이지 않는 나비

나비는 고양이로 짐작되는 존재이다. 한용운은 나비를 애타게 부르지만 나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용운은 나비를 위해 먹고 남은 음식들, 백년초, 천년초, 백도라지를 가져와 그릇에 담으며 나비를 부르지만 나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용운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나비에게 토라져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심우장 땃돌 위에는 한용운이 벗어 놓은 신발 한 켤레만이 남는다.

뮤지컬 《심우》의 첫 장면이다. 10월 6일 오후, 극장 봄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비하인드 심우'에서 뮤지컬의 극본을 쓴 극단 더늠의 차지성 대표는 이 장면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는 한용운 선생이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불려도 끝내 나타나지 않는 나비를 통해 그런 만해의 운명을 암시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비를 위해 그릇에 담아온 갖가지 나물들은 이 땅의 민초들을 상징한다고 대사의 의도를 설명해 주었다. 단순하지만 깊은 설명에 지하 소극장이 술렁거렸다. 첫 장면에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7년 동안 《심우》를 보고도 몰랐나 자책하는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비하인드 심우'는 뮤지컬 《심우》의 숨은 이야기, 보이지 않는 나비를 찾는 마음들이 모여 막을 열었다.

'비하인드 심우'는 연초에 계획했던 행사는 아니었다. 6월과 7월에 계획한 뮤지컬 《심우》의 심우장 현장 공연을 코로나19로 온전히 마칠 수 없게 되자 급하게 공연 형태를 변경하여 토크콘서트로 기획한 행사였다. 장소도 심우장이 아닌 삼선교의 극장 봄으로 정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심우장에서 100회 넘게 공연했던 《심우》의 제작과정, 배우와 스태프들의 뒷이야기, 관객들의 감상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리로 만든 것이었다.

소극장의 무대에는 뮤지컬과 관계있는 사람들 11명이 패넬이 되어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동네 사랑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간 중간 6월에 촬영해 만든 뮤지컬 《심우》의 영상을 보고, 영

숙 역을 맡은 신정은 배우의 갈라 공연을 감상하며 제가끔 이야기를 털어놨다.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공감했다. 그때 오갔던 이야기들 가운데 잊고 싶지 않은 말들을 여기에 옮겨 본다. 뮤지컬 《심우》라는 넓은 딸의 비하인드 스페이스, 그 그늘진 뒤편에서 오갔던 말들이다.

뒤편의 말들

장원정(안무감독) : 배우들의 모든 움직임과 연기에 녹아 있는 안무를 염두에 두고 안무를 짰다. 영숙이 처음 무대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에서는 배우가 직접 소나무, 향나무, 심우장의 손때 묻은 공간을 터치하면서 심우장이란 무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경(분장감독) : 햇빛이 강한 여름철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분장도 이에 맞추어 했다. 관객들이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능한 내추럴하게 분장했다. 소극장과 달리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거울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보람(음악감독) : 곡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사와 인물의 캐릭터이다. 《심우》에 나오는 네 곡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영숙이 등장해서 처음 부르는 ‘여기가 우리 집 심우장이죠 ~’ 이 노래이다. 작품의 스타트를 끊는 노래인데다 영숙이라는 캐릭터를 소개하고, 심우장 전체를 아우르는 곡이기 때문에 가장 쓰기 어려웠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심우》와 함께 20대와 30대를 보냈다. 극의 마지막, 각자 생각하는 독립의 의미에 대해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나도 이 장면에서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신정은(한영숙 역) : 극중에서는 관객들이 실제 관객들이 아니고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들로 설정되어 있다. 극중의 아버지와 극 바깥의 관객을 오가며 아버지와 관객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다 보니 고민이 많았다. 연습했던 시간들이 즐거웠고 내가 더욱 정진하며 진중하게 다가 가야겠구나 하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많았다. 연습 때 연출님이 마른세수를 하시거나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영숙이로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원범(제자 역) : 처음엔 극단 연습실에 그냥 놀러갔는데 연출님이 나를 ‘제자’로 발탁했다. 그 후 머리를 스님처럼 깎고 승복을 입고 뮤지컬에 출연했다. 김동삼의 죽음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제자들은 연극 시작 후 꽤 오래 심우장 바깥에서 꼼짝 않고 대기해야 한다. 여름에는 모기에 물리기도 했고 겨울에는 발이 너무 시렸다. 승복을 입고 있으니 종종 골목의 행인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오기도 했다.

이요성(한용운 역) : 관객들의 존재가 크게 다가왔다. 관객들의 시선들이 나를 몰입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전달해준다. 눈물짓는 관객들을 자주 봤는데 그때마다 관객들에게 얻어가는 게 많았다. 하나의 극, 하나의 공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과거는 가슴으로, 현재는 입으로,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배역에 임했다. (※이요성 배우는 일정상 극장 봄에 오지 못해 핸드폰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누었다.)

임석규(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 만해가 심우장을 짓고 성북동에 들어왔던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다. 불교 비밀결사 ‘만당’의 수장이자 신간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만해는 이 시기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몸도 마음도 고달팠던 만해에게 김동삼의 죽음은 우는 애 때리는 격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뮤지컬은 잘 그려냈다. //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면 1920년대 파리에서 교류했던 예술가들의 생활과 낭만을 잘 그려내고 있다. 1930년대 성북동도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용운을 비롯해 이태준, 조지훈, 김용준, 김환기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한 동네에서 살았다. 그런 분들을 많이 등장시켜 《심우》 같은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길 바란다.

차지성(극본/연출) : 성북구에는 고유한 스토리를 가진 역사문화공간들, 문화재들이 곳곳에 있다. 성북구의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이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여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와 예술의 만남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다.

최인담(성북구청 학예사) : 뮤지컬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 첫 장면이 ‘나비야!’로 시작할 줄이야. 내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딸 영숙의 등장이었다. 영숙이 밝고 건강하게 노래를 부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영숙은 만해를 부를 때 선생님, 땡중, 아빠 순서로 부른다. 나는 이 장면에서 만해에게 가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만해의 가족을 통해서 본 일제강점기 시대상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갖고 뮤지컬을 봤다. 어두운 한용운과 밝은 영숙의 대비도 인상적이었다. // 《심우》의 가장 특별한 점은 공간이다. 이 극이 심우장이란 공간을 떠났을 때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작년에 홍성만해 생가터에서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공간에서 보니 또 다른 상상과 감정이 일어났다. 이는 모두 연출진과 배우님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은 두 편이 기억나는데 《심우》의 장점은 관객들을 울리는 장면이 빠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 신정은 배우님의 노래를 너무 잘 들었다. 제게는 수도 없이 들은 익숙한 노래인데 소극장에서 들으니 느낌이 다르다. 가사와 멜로디가 훨씬 명확하게 들려 몰입감이 상당하다.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소극장에서도 《심우》를 공연하면 좋을 것 같다. // 《심우》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과거에 빚을 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



《심우》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과거에 빛을 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진 빛을 어떻게 쫓아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져주기도 한다.

고 우리가 과거에 진 빛을 어떻게 쫓아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져주기도 한다. 《심우》와 비슷한 작품들을 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북구에 산재한 여러 역사문화공간들을 활용해 더 나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문화원이나 극단 더듬 모두 고민해봤으면 한다.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 감개무량하다. 2014년 3월, 차지성 연출과 술자리를 가지며 머리를 맞대고 《심우》를 기획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다. 《심우》를 보며 항상 느끼는 것은 이제 지역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의 문화기획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작품이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 《심우》야말로 그런 변화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콘텐츠의 서막을 여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극단 더듬과 함께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드신데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

이 모든 말들을 현장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했다. 문화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생방송 중계라 준비하는 데 난관이 많았다. 그러나 민문기 성북학연구팀장의 치밀한 준비와 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윤호준 학생의 명품 카메라워킹, 임영주 님의 기민하고 정확한 자막 제작 능력 덕에 무사히 중계를 마칠 수 있었다. 사회자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미숙한 멘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나친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돋우어준 패널들과 영상 저편 숨은 관객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본 행사는 하마터면 중간에 좌초할 뻔했다. 사회자로서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코로나19가 열어준 비평의 시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는 뮤지컬 《심우》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외의 시간을 가져다주었다. 그저 후일담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비하인드 심우’는 예정 어린 비평을 주고받는 시간이었다. 어떤 텍스트를 치밀하게 읽고 그 텍스트에 대하여 말하는 행위를 비평이라 정의한다면 그날 극장 봄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은 그런 비평의 조건을 얼마간 갖춘 것이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비하인드 심우’에서 우리는 뮤지컬 《심우》가 품고 있는 의미와 상징,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망설임과 노고를 읽을 수 있었다. 서로의 시선들, 느낌들, 생각들이



전체 무대 ('비하인드 심우' 유튜브 영상)



발언하는 차지성 대표 ('비하인드 심우' 유튜브 영상)



신정은 배우의 갈라 공연 ('비하인드 심우' 유튜브 영상)



이요성 배우와의 전화 연결 ('비하인드 심우' 유튜브 영상)

교차하고 얹히면서 또 한 편의 《심우》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을 통해 《심우》는 조금은 더 넓은 맥락 속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리 작은 공연, 작은 작품일지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는 관객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아무리 낮은 산도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장소와 생명체를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북의 지역 문화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예술작품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그저 한 순간 소비되고 시민들의 기억 바깥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민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음미하고, 나누기도 전에 작품은 사라지고 없다. 그것은 나비와 같이 가 버리고 없다.

필요한 것은 나비를 기억하고 찾는 시간이다.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평의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한다. 비평이 지역 문화의 한 고리를 담당할 때 지역 문화 생태계 전체는 더욱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원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할까? 아직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비하인드 심우'를 다시 돌려 보며 드는 생각이다.

2020 주민기록단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 주민기록단 활동 내용

우리 문화원에서는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마을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은 성북구 주민들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기록하는 성북의 역사기자단입니다. 성북구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구술 자료로 기록하거나, 변해가는 성북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수집합니다.

먼저 9월부터 4달간 진행된 주민기록단 하반기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개인 활동으로 기획하였고, ‘우리동네 오래된 가게’를 활동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민기록단으로 선정된 분들은 오래된 가게 혹은 본인이 기록하고 싶은 가게를 사진 촬영하고, 가게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동네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주민기록단은 발로 뛰어가며 우리 동네의 숨겨진 가게를 찾아내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 2019년 기초과정에 이어서 ‘구술채록과 글쓰기’라는 주제로 진행한 주민기록단 심화과정입니다. 올해는 구술 인터뷰 이후의 구술자료 기반 글쓰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녹취록 작성, 주제 나누기 등 글쓰기 실습을 하고, 그 결과물로 구술이야기책을 만들었습니다. 심화과정 역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인터뷰와 답사만 현장 실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 모든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되어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강의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영미 교수의 구술인터뷰 방법론을 시작으로 녹취록 작성법, 인터뷰 경험 나누기, 구술 글쓰기 방법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3주차에는 구술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고, 6주차에는 관련 마을(정릉동, 보문동, 삼선동)을 답사하고 구술자와 관련된 장소를 촬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술생애사 글쓰기를 직접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주민기록단은 구술이야기책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만큼, 구술자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10월에는 구술자의 삶의 토대이자, 생활공간에서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 프로필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에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안혜리 교수와 학생들이 생애이야기를 미술로 표현하는 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술자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삽화와 만나 더욱 깊어졌습니다. 글로만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은 구술이야기가 멋진 노랫말처럼 펼쳐지는 특별한 책을 지속적으로 발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기록단이 되려면?

매년 성북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주민기록단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시면 정식 ‘주민기록단’이 되어 성북문화원과 함께 마을기록 수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 실습을 거쳐 수집한 기록물은 추후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선별 · 게재됩니다. 평소 성북구와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술자와 수강생의 기억에 남을 소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성북구에서 살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성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주민기록단 활동 기록(대표 예시)

〈구로 카페〉는 2011년 6월 개업하여 불과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카페가 있던 자리에는 2019년 3층짜리 빌라가 들어섰다. 운영 기간은 짧았지만 카페 ‘창업 발기인들’이 특이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성북동 ‘우정의 공원’옆의 숙정문으로 가는 ‘성북로 31가길’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호젓한 곳에 한옥 카페 ‘구로’가 있었다. 커피 맛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커피 마니아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그중에는 특히 화가나 문인들과 같은 예술인들이 많았다. 아래는 소설가인 카페 여주인이 들려준 구로 카페의 창업 히스토리다.

2011년 6월 초, 성북동의 인근 주민들이 함께 만났다. 주부, 커피 제조 전문가(바리스타), 화가, 문학가들이다. 성북동 사람들의 새로운 소통의 창구인 카페 ‘구로(cafe Guro)’가 출범 하던 날은 마치 대단한 축제의 날처럼 북적였다. 카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옆집 아주머니들이 사 온 케익, 고암 선생댁의 콩국수, 구로네 안주인의 카레라이스, 그리고 일본인 주민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로 유월의 긴 야밤 파티를 하며 흥겹게 보냈다.



(구) 구로카페, 2014.11.23.



구로카페 자리에 세워진 건물, 2020.9.20.

카페 운영을 맡은 50대의 여주인은 어엿한 등단 소설가이다. 또한 바리스타(커피 전문가) 일 본인 니쇼지 기이치(당시 76세) 씨는 한국(성북동)에 41년간 거주하며 한국 산요 지사장을 지냈고, 대학로 학림다방에 커피 제조기술을 전수했다고 한다. 한편 전각예술가(새김아티스트) 고암 정병례 화가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구로 카페의 간판을 만들어주었다. 그는 ‘새김아트’라는 현대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우리의 전통 전각의 독창적인 현대화를 이룬 사람이다.

카페 정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4~5미터 높이의 수직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샘물(지하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천연의 연못으로 맑고 찬 물이 늘 넘쳐흘렀다. 한편 상호 ‘구로’는 일본어 ‘くろ[黒]’이며 검은다는 뜻이다. (사전 : 검정, 검은 옷, 검은 돌). 카페 주인이 개를 좋아하여 커다란 검은 개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구로네’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호도 자연스럽게 ‘구로’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말, 구로 카페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한동안 폐가처럼 방치돼 있다가 2019년 가을에 그 자리에 3층짜리 빌라가 들어섰다. 다행히 예전에 창고로 썼던 노란색 낡은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옛 추억에 젖게 한다. ‘구로’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 영원히 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주민기록단 1기 남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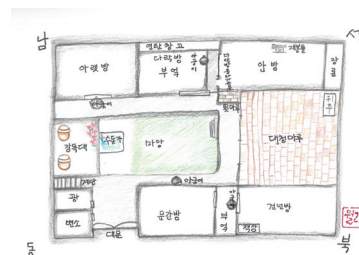
♣ 주민기록단 심화과정 활동



구술자 미술교육 삽화, 정릉동 손명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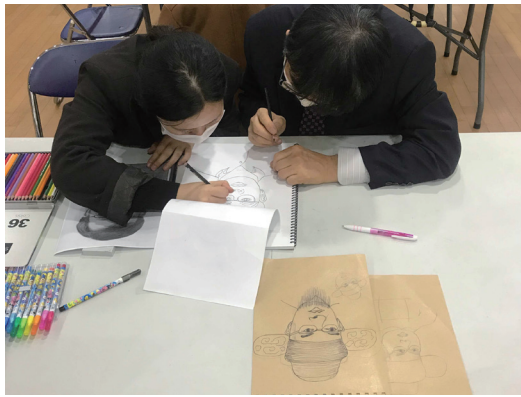


구술자 미술교육 삽화, 삼선동 이재환





구술자 미술교육 삽화, 보문동 한정숙



구술자 미술교육 활동 모습



구술자 프로필 사진촬영, 정릉동 손명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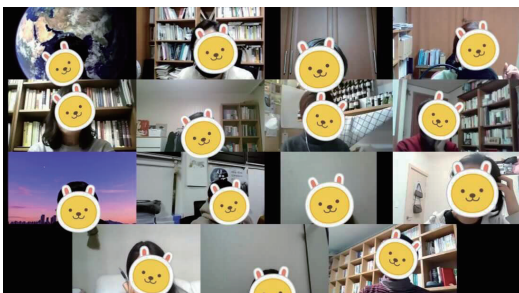




구술자 프로필 사진촬영, 삼선동 한정숙



구술자 프로필 사진촬영, 보문동 이재환



주민기록단 온라인 플랫폼 강의 및 조별활동 모습



2020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코로나19로 인한 잠시멈춤의 상태에서도 생활예술을 실천하며 정진한 성북문화원 수강생들의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외부 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에 대한 저물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여러분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김진순	한국회화의 위상전 공로상
민화	강승진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동상
	김지윤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
	이영주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
	최희정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한국화) 은상
사군자	정명숙	제18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특선
		제18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입선
	이발	제2회 대한민국통일명인미술대전 삼채상
		제18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삼채상
수묵산수화	김민섭	제28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선
		제18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특선
		제18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입선
		제16회 대한민국 금과서예미술대전 특선
		제16회 대한민국 금과서예미술대전 입선
		제22회 강남서예문인화대전 삼채상
	정인화	서예문인화대전·통일명인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우수작가상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김옥희	제30회 한국여성미술공모전(서양화) 입선
한글서예	김인석	제8회 대한민국나라사랑미술대전 한글서예 동상
		제18회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대전 서예 은상
	김진순	제18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입선
		제34회 대한민국서예·미술공모대전 특선
한문서예	박영옥	제18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최우수상
		제29회 농업인 서예대전 우수상
		제13회 대한민국 허백당 태을서예문인화대전 장려상
		제13회 대한민국죽농서화대전 우수상
		제1회 대한민국척주미술대전 우수상
		제6회 평화통일 서예 공모대전 국회의원상
		제10회 대한민국행춘서예대전 우수상
	이발	제2회 대한민국통일명인미술대전 특선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제21회 대한민국정수대전 입선

대회 및 수상 사진



기초소묘에서유화까지 | 김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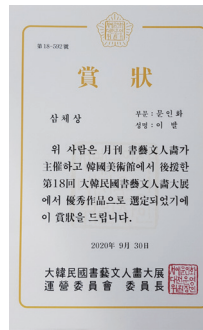
민화 | 수상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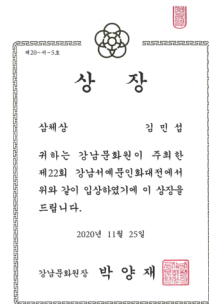
민화 | 수상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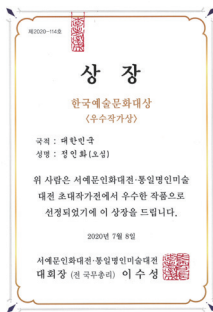
사군자 | 정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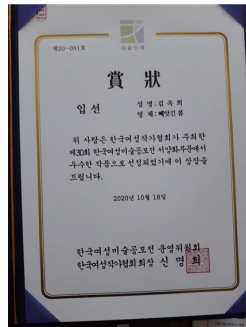
사군자 | 이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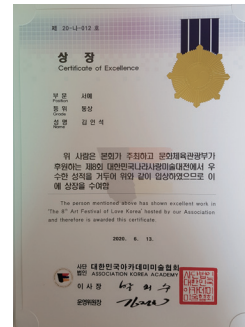
수묵산수화 | 김민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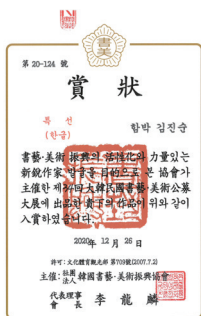
수묵산수화 | 정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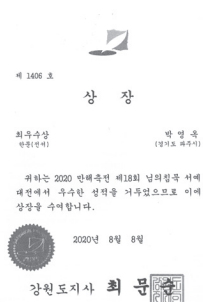
유화로그리는민화 | 김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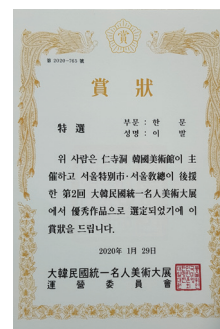
한글서예 | 김인석



한글서예 | 김진순



한문서예 | 박영욱



한문서예 | 이발

2020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2020년 가을 선선한 바람을 따라 성북천에 깃발이 남실거렸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성북구의 숨은 영웅'을 주제로 한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총 94점, '조지훈 탄생 100주년 - 시인 조지훈'을 주제로 한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 총 78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총 148점이 깃발에 담겨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과 명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문인들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11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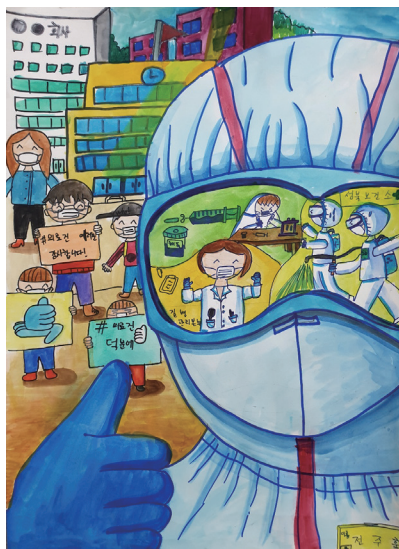
주제 : 성북구의 숨은 영웅



대상

김민정(삼선초 4)

〈우리 성북구를 지키시는 영웅, 소방관!〉



최우수상

전주훈(석계초 5)

〈당신이 진정한 영웅, 엄지 척!〉



최우수상
정해승(석계초 3)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낸 영웅〉



우수상
이수빈(일신초 6)
〈마스크를 쓰는 우리! 성북구의 영웅!〉



우수상
이해밀(석계초 4)
〈많은 나라로부터 문화재를 지킨 전형필〉



가작
손예담(대광초 6)
〈성북구에서 96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가작
이준희(길원초 1)
〈성북구의 숨은 영웅들〉



가작
임성준(석계초 4)
〈백신 속의 영웅들〉



가작
임지현(돈암초 4)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우리 것을 지켜주신
고마운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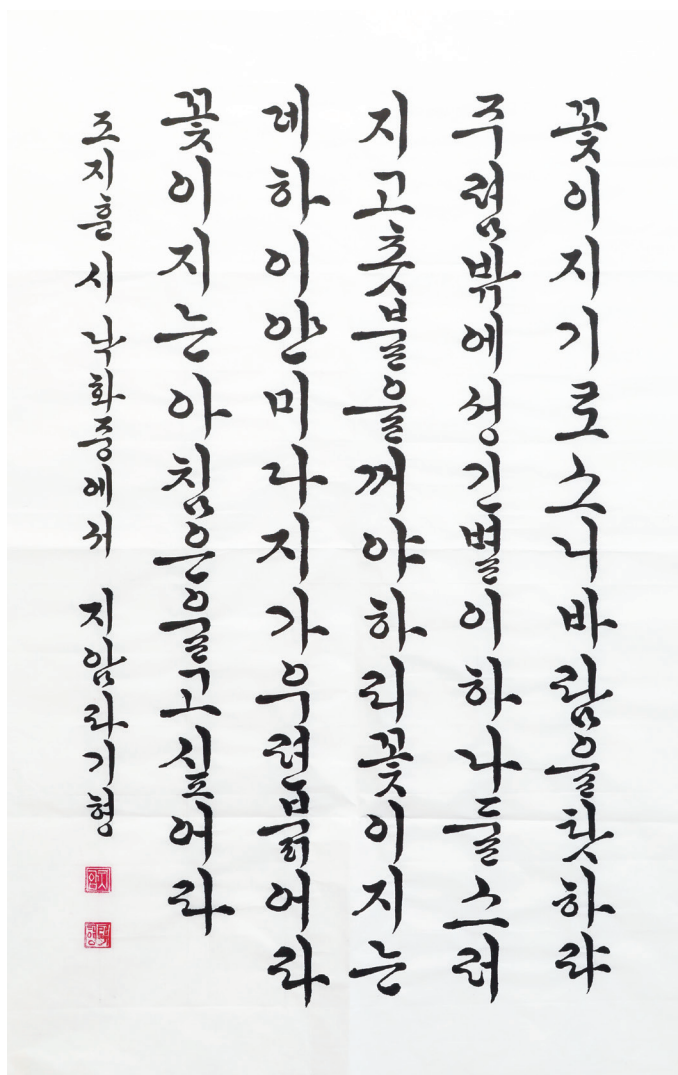


가작
정채영(성북초 6)
〈우리 모두 영웅〉

제11회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조지훈 탄생 100주년 - 시인 조지훈

[한글서예 부문]



대상
나기형
〈낙화〉

그대의 할함이 빛이 머릿결에 새
빨간 동백꽃이 핀다 그대의 파란
옷자락에는 상한 풀내음이 새
다 바랍이 부는 것은 그대의 머리카
과 옷고름을 가벼이 날리기 위함
라 그대가 오기 위하여 가는 곳엔
랍도 아리따움 다
조지훈시인기념사업회

최우수상
고주연
〈여인〉

장독대 위로 흰 달 초고 새 빨간
몽선 화이우는 밤작은 호수로
가는 길에 호이 호이 휘 좌랑 날
려 보나 머리카락 하얀 옷고름 바
람이 가져가고 사슴이 커럼 향
긋한 그림자 따라 산 밑 주막에
머막 걸립을 마신다
조지훈시인기념사업회

최우수상
유명숙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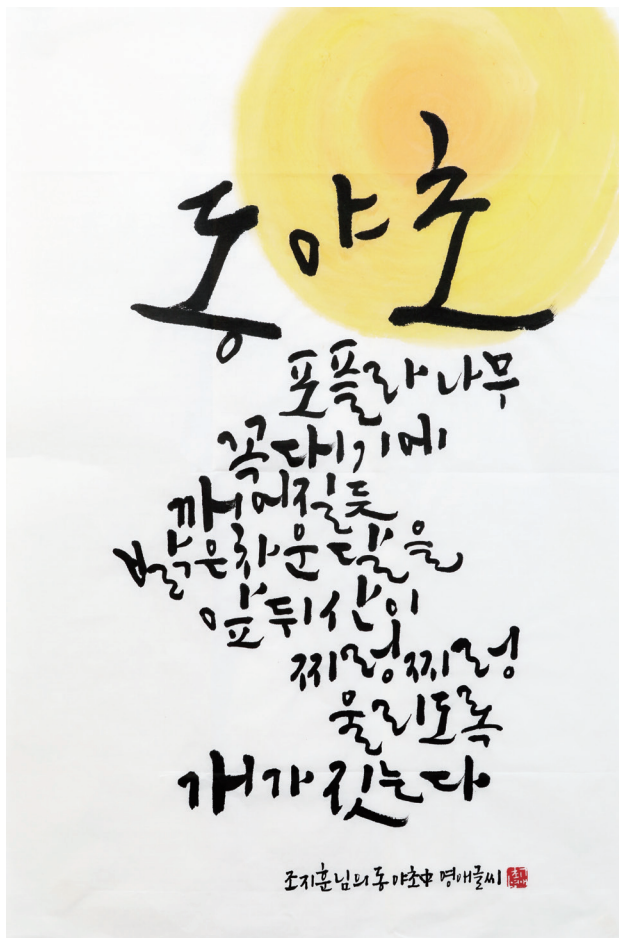
불려야 할 뜨거운 노래 가슴으로
이 머랑 신은 멀리 잃어지고 있었다
조지훈시인기념사업회

우수상
김인석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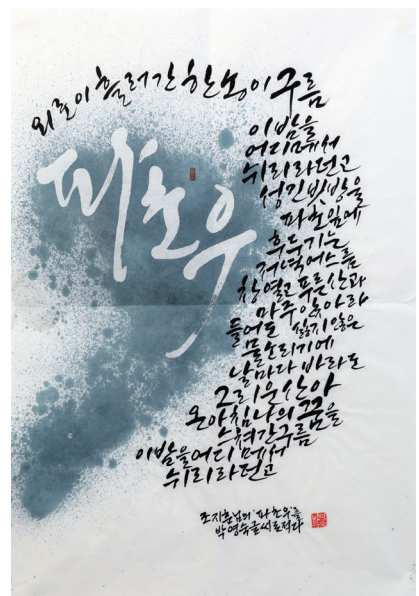
아미를 속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기문 곁 줄 골라 보리니
조지훈시인기념사업회

우수상
김천일
〈고풍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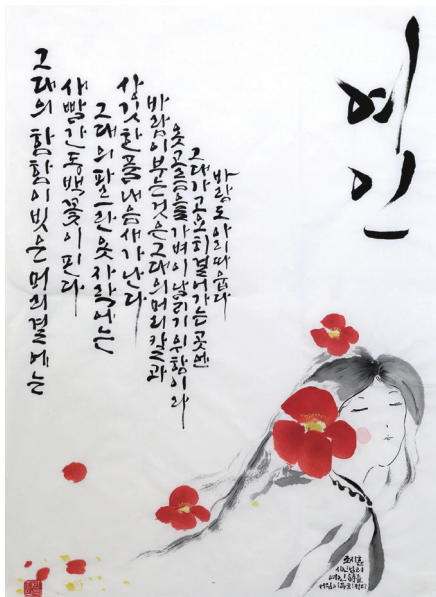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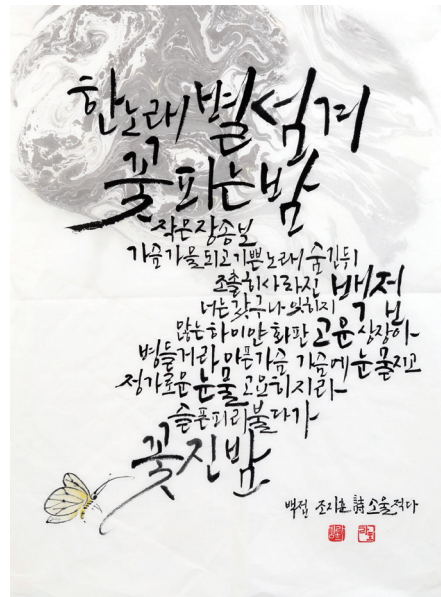
대상
최영애
〈동야초〉



최우수상
박영숙
〈파초우〉



최우수상
이득희
〈여인〉



우수상
김랑희
〈백절〉



우수상
문진희
〈빛을 찾아가는 길〉



우수상
배정인
〈달밤〉

사진으로 만나는 성북문화원의 2020년

성북문화원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가치의 경험을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강좌 대부분이 개강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었고, 구민들의 참여로 매년 이어오던 각종 행사들도 취소되어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성북문화원은 인문학 강좌, 뮤지컬 등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풍성하기를 기대하며 더욱 활기찬 활동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강좌



사군자



수묵산수화



수채화&데생



한글서예



한문서예



지역문화 계승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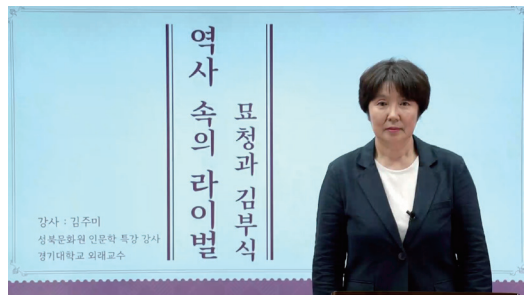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





인문학 강좌



2020 인문학 특강 '역사 속의 라이벌 - 묘청과 김부식'



2020 프리미엄 인문학 '574돌 한글날 기념 인문학 다방'



2020 프리미엄 인문학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인문학다방'



성북구 주민아카데미
강연_우리나라의 의학과 성북



성북구 주민아카데미
강연_조선의 과학기술과 성북



성북구 주민아카데미
성북의 문화유산 '세계유산 의릉'



성북구 주민아카데미
성북의 문화유산 '세계유산 정릉'



지역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다례제



뮤지컬 심우





비하인드 심우



플어안암



성북천 깃발전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서울 성북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성북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누리집 (<http://archive.sb.go.kr>)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와 관련한 기록이나 파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가 처음이다.

구는 지난 2018년 성북문화원과 손잡고 '성북구 마을기록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했고 2년 동안 진행한 결과물로 디지털아카이브를 선보이게 됐다. 또 구민은 '성북구 주민기록단'을 결성하고 동네의 숨은 자료를 발굴·수집했으며, 이 기록물 또한 성북마을아카이브 누리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성북마을아카이브 누리집은 △주제로 보는 성북 △이야깃거리 △구술인터뷰 △기록물 △주민기록단 △성북마을발견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마을기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골목마다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한 성북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사·문화의 지역 자산화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문화일보》, 2020.01.3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1.28	MHN문화뉴스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을 한눈에
2	01.29	헤럴드경제	'성북마을아카이브' 구축
3	01.30	문화일보	성북구 기록, 박물관처럼 보관... 마을아카이브 구축·누리집 오픈

HOME > 로컬뉴스

(성북) 만해 한용운, 그를 추모하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 기자 | 승인 2020.07.20 14:26



【앵커멘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76주기를 맞아,
그가 생을 마감했던
성북구 심우장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이드케이블》, 2020.07.2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	07.20	인사이드케이블	(성북) 만해 한용운, 그를 추모하다.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원의 대응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원 대응 전략' 심포지엄 개최

20.09.26 16:27 | 최종 업데이트 20.09.26 16:27 | 조연섭(tbntv) ▾

👍 좋아요 10개 + 크게 | - 작게 | 📄 인쇄 | URL줄이기 ▾ ☆ 스크랩

f 0 🐦 ➡

🔍 원고료로 응원하기

👍 2 💬 댓글달기



▲ 심포지엄 한국문화원연합회

© 조연섭기자

관련사진보기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25일 비대면 심포지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지역문화원이 '글로벌 지역주의 시대' 역할이 크다며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20.09.2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5	09.26	오마이뉴스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원의 대응법은

아시아경제

성북구 코로나 방역 경험 K방역 자산으로...

기사입력 2020.10.21. 오전 8:52 최종수정 2020.10.21. 오후 10:2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1

댓글

요약본

가

인

공

성북구 코로나19 대응 여정 기록물 한데 모아 성북마을아카이브에 공개... 곳곳에서 소독·예방 작업 하는 주민과 공무원, 구내 선별진료소 풍경, 상점과 시장, 공공시설, 길거리 곳곳에 부착된 코로나19 관련 안내문과 현수막 등 코로나19에 관한 미래세대의 경험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림도 포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있었던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코로나19 대응 여정의 기록물을 한데 모아 성북마을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2020.10.2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6	09.26	오마이뉴스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원의 대응법은
7	10.21	신아일보	성북구, 코로나19 대응 기록물 마을아카이브 공개
8	10.22	내일신문	코로나 방역기록 '마을자산'으로

지역

성북구 독립운동 한 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 개설



최종수정 2020.11.19 10:34

기사입력 2020.11.19 07:52

댓글 쓰기

성북에서 활동한 100명의 독립운동가와 176건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화...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내 모바일로 쉽게 볼 수 있는 최적화된 콘텐츠



- 2021년에는 어떤일이 펼쳐질까? 무료 토정비결로 확인!
- 신규가입시 2~4년 객실료 50% 골프주중 50%할인 10년만기 입회금 전액반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관)은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성북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독립운동' 콘텐츠를 제작,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은 2018년부터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공동 협력,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 단위로는 최초로 성북구의 다양한 역사, 문화, 생활에 관한 기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올 1월부터 오픈,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2020.11.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9	11.19	여성종합뉴스	서울 성북구, 순국선열의 날 '독립운동'을 기록하다
10	11.19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지역내 활동한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개
11	11.19	아시아경제	성북구 독립운동 한 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 개설

HOME > 뉴스 > 사회

1950년 부다페스트에서 촬영된 이태준 작가의 사진, 주한 헝가리 대사에 의해 발견

✎ 박희윤 기자 | 📅 승인 2020.11.26 11:23 | 💬 댓글 0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가 11월 25일 이태준의 외증손녀 조상명 수연산방 대표에게 회귀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사진_헝가리 대사관)

[시사매거진] 이태준은 1930년대 한반도를 대표하는 문인 중 하나로 종종 '한국의 모파상'이라 불렸다.

1946년 월북 후 이태준은 몇몇 요직에 올랐다. 부다페스트 대학 한국학과 교수를 역임한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는 헝가리 통신사의 문서보관소에서 1950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촬영된 이태준의 사진을 발굴하였다.

이 회귀 사진은 조선여성동맹 초대위원장인 박정애와 함께 찍은 것으로 초머 모세 대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태준과 박정애가 북한에 대한 중동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구하고자 헝가리 수도를 방문했을 때 촬영되었다.

이태준은 추후 북한 정권 내부 혼란으로 숙청되었고 그의 후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회귀 사진은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가 2020년 11월 25일 이태준의 외증손녀 조상명 수연산방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수연산방은 서울 북부에 위치한 이태준의 고택이다. 전달식은 주한 헝가리 대사관, 한형친선 협회(회장 노재현),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2	11.26	시사매거진	1950년 부다페스트에서 촬영된 이태준 작가의 사진, 주한 헝가리 대사에 의해 발견

2020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성북문화원이 2020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성북문화원은 지역 기록물을 수집 및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여러 콘텐츠를 통해 마을기록의 중요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지난 2017년, 성북구청과 함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5개년 사업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를 구축하여 기록물과 다양한 큐레이션 및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 주민기록단'을 통해 주민분들과 함께 기록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지역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020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대권	(주)광주요 그룹 회장
부원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김영일	(주)태명실업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
이사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김신한	대성산업 고문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학예실장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당연직)	민지선	성북구청 복지문화국장

감사

정호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최종명	최종명세무사사무소 대표

운영위원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계영선	영라인의원 원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과장
이흥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한민석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고문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박대호	원제한의원장
이병무	(주)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주)피존 회장
이의순	(주)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CEO회장
정승소	(주)동승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 회장

2020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계영선, 권아름, 김광자, 김금숙, 김명희, 김용준, 김유영, 김은화, 김의성, 김장현, 김주미,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병호, 박상찬,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배재현, 변성진, 서준석,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강한, 이건자, 이상훈, 이석권, 이승호,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주현, 이준성, 이종민, 이현주, 임석규, 전원호, 정병기, 정영, 정지연,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홍선희, 황장훈, 황재호, JIN LIAN H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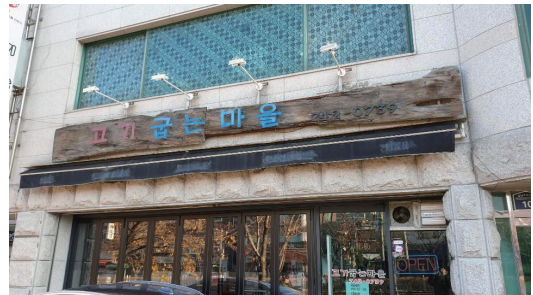
기관·단체

교육기업 함께늘봄, (주)삼신엠엔티, 주식회사 피사일삼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영라인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6길 4)



고기 굽는 마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6)



탭하우스F64(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데자르(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30 2층)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자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시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21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개강

< 개강 강좌 >

강좌명	요일	시간	수강료(12주)	정원
사군자	월	10:00~12:00	60,000원	18명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화	10:00~12:00	70,000원	16명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화	13:00~15:00	70,000원	16명
한글서예	수	10:00~12:00	60,000원	18명
민화 - 전통채색	수	13:10~15:10	70,000원	16명
수묵산수화A	목	09:20~11:20	60,000원	18명
수묵산수화B	목	11:30~13:30	60,000원	18명
한문서예A	목	14:00~16:00	60,000원	18명
한문서예B	목	16:00~18:00	60,000원	18명
규방공예	금	10:00~12:00	60,000원	18명
수채화&데생	금	13:20~15:40	80,000원	16명

< 온라인 강좌(ZOOM) >

강좌명	요일	시간	수강료(12주)	정원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월	14:00~14:50	45,000원	12명
원어민중국어회화(중급)	월	15:30~16:50	60,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초급)	화	10:30~11:20	45,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중급LEVEL1)	화	11:50~12:40	45,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중급LEVEL2)	화	13:10~14:00	45,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고급)	화	14:30~15:50	60,000원	12명

개강일 : 2021년 3월 2일(화) / 문의전화 : 02-765-1611

인터넷접수 : 2월 15일(월) ~ 선착순 마감 / 현장접수 : 3월 2일(화) ~ 선착순 마감

